

#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

## A Study on Riding Equipment and Breeding System of Horse in the Great Mongol Empire and Yuan Empire

박원길(Park Won-Kil)\*

목차
I. 머리말
II. 양마법
1. 대원올로스의 마정
2. 사육법
III. 기마장비
1. 에메일 부분
2. 재갈 부분
3. 기타 부분
IV. 맺는 말

### I. 머리말

대몽골(원)제국은 제1차 지구촌제국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바다와 육지를 하나로 통합한 제국이다. 이 세계제국의 시대이념이 흥익인간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팍스-몽골리카(Pax Mongolica)이다. 팍스-몽골리카는 경제적으로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제이념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그들의 군사력은 전쟁에서 속도를 제공하는 말(馬)이 최초의 기반이 되고 있다.

『원사』에도 대몽골(원)제국의 흥기는 “원나라는 삭방에서 일어났는데, 풍습이 말 타고 활 쏘는데 능하다. 그래서 활과 말의 힘으로 천하를 차지했다. 이는 만고에 없는 일이다.”<sup>1)</sup> 라고 언급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 때 일본이나 남쪽으로 나가는 요충에 위치한 탐라는 제국의 14대 목장의 하나로 지정될 만큼 주요 전투마 생산기지이다. 그리고 아직 연구된바 없지만 탐라 역시 흑해 연안의 크림리아 반도와 같은 주요 상업항구의 기능도 했으리라고 보인다.<sup>2)</sup>

\*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hinggis Khan Studies/History), (사)한국몽골학회 이사장

1) 『元史』卷100 「兵志・馬政」: “元起朔方, 俗善騎射, 因以弓馬之利取天下, 古或未有之”

2) 현재까지 대원올로스와 탐라 관계사 연구에서 탐라의 가치는 상업과 말 중에서 말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몽골이 탐라의 가치를 최초로 주목한 것은 말이 아닌 길이었다. 사실 코발라이카간이 바다와 육지를 이은 거대한 중상주의제국을 완성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바닷길의 요충지인 탐라를 단순히 말만 키우는 기지로 활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몽골(원)제국의 외교정책입안은 정확한 정보에 의거하여 명분과 최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로운 세력(외국인)을 만날 때 먼저 그들에게 자신들의 근원과 가치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3세기 탐라와 몽골의 만남을 역사서에 의거해 기록을 재구성 해볼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高麗史』卷26 「世家・元宗」: “[1266년] 제주 성주(星主) [양호(梁浩)]가 와서 왕을 알현했다. 갑자일에 정언(正言) 현석(玄錫)을 보내 성주를 데리고 몽골로 가도록 했다(濟州星主來見, 甲子遣正言玄錫, 以星主如蒙古).” ② 『元史』卷6 「世祖本紀」4年(1267)正月條: “백제가 신하 양호(梁浩)를 보내 알현하자 아름다운 비단옷을 하사했는데 [같이 온 탐라사람들과는] 차등이 있었다([四年春正月]乙巳, 百濟遣其臣梁浩來朝, 賜以錦繡有差).” ③ 『元史』卷208 「外夷一, 高麗」: “[1269년 7월] 황제가 명위장군(明威將軍) 도통령(都統領) 토티아(Togtoga, 脫朵兒), 무덕장군(武德將

대몽골(원)제국은 말뿐만이 아니라 13세기의 그 어느 나라든 군사나 무기 및 전술의 상호 교합 등에서 몽골의 맞수가 되지 못했다. 몽골의 군대는 그들의 시대이념(팍스-몽골리카)에 걸맞게 정보·심리전, 속도전, 보급전, 무기의 과학화, 군대의 다국적화 등에서 놀랄만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몽골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① 군정일치의 사회조직인 천호제(Minggan-u Noyan system), ② 마정(馬政), ③ 몽골군의 부대구성과 전술, ④ 군사장비 및 보급의 4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①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시에 도극비의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헌에 매우 간략하거나 상징화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필자는 위의 항목 가운데 ③번과 ④번 항목에 해당하는 몽골군의 부대구성과 전술, 군사장비 및 보급에 대해서는 이미 전론을 발표한 바 있다.<sup>3)</sup> 대몽골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가 그들의 우수한 말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명성에 반해 대몽골(원)제국의 마정(馬政)에 대한 연구는 1938년 길원공평(吉原公平)의 『몽골마정사(蒙古馬政史)』(東京, 東學社)가 출판된 이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sup>4)</sup>

軍) 통령(統領) 왕국창(王國昌), 무략장군(武略將軍) 부통령(副統領) 유걸(劉傑)을 [고려에] 보내 탐라에 이르는 길들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고려왕 식[원종]에게 관리를 선발해 이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탐라에서 바닷길로 남송이나 일본에 가는 것이 아주 쉽다”고 했기 때문이다([至元]六年(1269)七月, 帝遣明威將軍都統領脫朵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 相視耽羅等處道路, 詔植[元宗]選官引達, 以人言耽羅海道往南宋·日本甚易故也).” ④ 『元高麗記事』 「耽羅」 至元 9年(1272) 11月 15日條: “또 겸하여 탐라국왕이 일찍이 내조하였는데, 지금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킨 도적이 그 주인을 몰아내고 성곽을 점거하였으니 의리상 먼저 평정해야 합니다(又兼耽羅國會來朝, 見今叛賊逐其主, 占據城郭, 義當先平).” ⑤ 『元史』 卷17 「世祖本紀」 30年(1293) 2月條: “연해에 수역(Usun-u Jam, 水驛)을 둘 것을 명한다. 탐라에서 압록강 하구에 이르는 11개 수역 [설치]는 홍군상(洪君祥)이 관장하도록 하라(詔沿海置水驛, 自耽羅至鴨綠江口凡十一所, 令洪君祥董之).” ①과 ②의 기록은 탐라와 몽골인들의 첫 만남에 해당한다. 몽골인들은 『몽골비사(Monggol-un Nigucha Tobchiyan)』의 첫 구절이 칭기스칸의 근원(Chinggis Khagan-u hujagur)으로 시작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근원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이며, 최초의 민족을 만날 때도 그들의 기원부터 파악한다. 따라서 ②의 기록 즉 『元史』의 百濟 운운 기록은 1267년 1월 梁浩 등의 탐라인들이 코빌라이칸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기원(Tamra irgen-ü hujagur)을 高麗가 아닌 百濟와 연관 지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몽골인들이 탐라를 고려와 기원이 다른 민족계열로 판단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을 폈을 가능성도 제시해 주고 있다. ③의 기록은 탐라의 가치가 최초 말이 아닌 교통요충에 있음을 타내 주고 있다. 즉 말의 가치는 이후 답사결과 생겨난 것임을 보여준다. ④의 기록은 당시 탐라의 정치적 위상이 금나라의 羈縻하에 있었던 알라코시-디기트-코리(Alakhushi-Digid-Khuri)의 영구드부(Önggüd)부와 유사함을 보여주는데, 의리상 먼저 평정해야 한다는 기록은 대몽골(원)제국의 정치적 이념과 원칙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또 몽골이 고려와 탐라를 분리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⑤의 기록은 탐라에서 중국, 일본, 고려로 이어지는 해로 중 고려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탐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전통적인 뱃길은 탐진(耽津)과 나주(羅州)이다. 이상 ①~⑤에 이르는 기록은 탐라에 진주한 목호의 해석에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목호의 탐라 지배와 거주를 수탈의 공식으로 보지 말고 몽골이 거주했던 기타지역처럼 공존의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목호를 위시한 탐라인들이 고려의 羈縻를 받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실 목호를 왜구의 주력세력 하나로 보는 견해도 탐라가 지닌 상업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탐라의 위상은 『원사』 「탐라전」이 상징하고 있듯 대원올로스 때 가장 분명하고 독자적인 면이 강했다고 보인다.

- 3) 박원길, 「몽골비사 195절의 표현방식을 통해본 13~14세기 몽골군의 전술」 『몽골학』 14, 2003 ; 상동, 「13~14세기 몽골군의 무기와 보급체계의 연구」 『몽골비사의 종합적연구』 서울, 민속원, 2006, pp.363-399. 참고로 「몽골비사 195절의 표현방식을 통해본 13~14세기 몽골군의 전술」은 『몽골비사의 종합적연구』에는 「몽골비사에 나타난 몽골군의 전술」로 제목이 바뀌어 게재되어 있다.
- 4) 吉原公平 이후 대몽골(원)제국의 馬政에 대한 연구는 郭庆昌, 「關於元代的馬政」 『历史教學』 1960-5 ; 札奇斯欽(Jagchid-Sechin), 「說元代的馬政」 『蒙古史論叢(下)』 台北, 1980 ; 波·少布, 「元朝的馬政制度」 『黑龍江』

본고는 13세기 당시 몽골군의 말 사육법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 조공(趙珙)의 『몽달비록(蒙鞑備錄)』과 팽대아(彭大雅)·서정(徐霆)의 『흑달사략(黑鞑事略)』의 기록과 『원사』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몽골(원)제국의 마정(馬政)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로 나누어 기술했다.

## II. 양마법(養馬法)

### 1. 대원올로스의 마정(馬政)

#### (1) 양마(養馬) 관리 기관

대몽골시대 때의 마정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대칸의 친위대인 케식텐(Keshigten) 조직 내에 말을 관리하는 모린치(Morinchi, 莫倫赤) 등의 직제가 있고, 세금 역시 말이나 소, 양 등 100마리 당 1마리를 내는 것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고 보인다.

말 사육을 관장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때는 대원올로스의 코빌라이칸(Khubilai Khagan, 1215년생, 재위 1260.3~1294.1) 때부터이다. 그것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태복사(太僕寺)

코빌라이칸은 중통(中統) 4년(1263)에 군목소(群牧所)를 설치하고 태부감(太府監)에 예속시켰다. 그리고 말 사육 및 안장[鞍]과 재갈[勒] 만드는 것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다 지원(至元) 16년(1279)에 명칭을 상목감(尚牧監)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지원(至元) 19년(1282) 다시 상목감을 태복원(太僕院)으로 개칭했다. 다음해인 1283년, 태복원을 위위원(衛尉院)으로 개칭했다가 다시 군목소로 바꾸었다. 지원(至元) 21년(1284) 2월, 군목소를 폐지하고 다시 위위원을 세웠다. 그러다 지원(至元) 24년(1287), 위위원을 폐지하고 태복사(太僕寺)를 세웠다. 태복사는 오직 전투마인 악타(阿塔思, Agtas: 거세마) 말만 관리하며, 선위원(宣慰院)에 예속되었다가 1년 뒤인 1288년 중서성(中書省)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별도로 상승사(尙乘寺)를 두어 안장[鞍]과 고삐[轡]를 관할하게 하였다.

코빌라이칸 통치시기 태복사는 어위하(禦位下)와 예케-오르도(Yeke Ordu, 大斡爾朵: 行宮) 소속의 말을 관장하였다. 태복사에는 정삼품(正三品)인 태복경(太僕卿)과 종사품(從四品)인 태복소경(太僕少卿) 등 2명의 제조관(提調官)이 있다.

무종(武宗) 카이산-쿨룩 카간(Khayisan Külüg Khagan, 1281년생, 재위 1307.5 ~ 1311.1)이 등극하자 그해 태복사를 태복원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지대(至大) 4년(1311), 태복원을 폐지하고 다시 태복사로 환원시켰다. 태복사는 전국 14개의 국영목장을 관장했다. 그리고 태묘(太廟) 제사에 소용되는 말들은 전문사육인들을 두어 따로 관리했다.

##### 2) 상승사(尙乘寺)

---

民族叢刊』1995-3；王磊, 「元代的畜牧業及馬政之探析」(2005년 中國農業大學 석사학위논문)；王磊, 張法瑞, 「略論元代的馬政」『古今農業』2011-1；趙彥風, 「元代官牧場及相關問題研究」(2011년 陝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상승사는 대칸의 안장과 고삐, 수레 등을 관장한다. 그리고 거세마 무리, 당나귀와 노새 등 각 로(路)의 국원(局院)에서 안장과 고삐 등을 만드는 것을 관리하고, 행정(行省)에서 매년 제조하는 안장과 고삐의 수요도 관리한다. 또한 4개의 케식텐(Keshigten)에 소속된 악타치(Agtachi)들의 소송을 심리하고 관장하는 등 각곳에 있는 말들에 관한 쟁송사무를 관장한다. 관원은 정삼품(正三品)인 경(卿)이 4명, 종사품(從四品)인 소경(少卿)이 2명이다. 카이산-쿨룩 카간이 등극한 후 상승사는 직급 종이품(從二品)이 관할하는 상승원(尙乘院)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아요르바리바드 카간이 등극한 후인 1311년 다시 사(寺)로 격하되었으며, 연우(延佑) 7년(1320)에 직급도 종삼품(從三品)으로 낮추어졌다.

### 3) 군목도전운사(群牧都轉運司)와 군목감(群牧監)

코빌라이카간은 지원(至元) 22년(1285), 상도(上都) 등의 로(路)에서 군목도전운사사(群牧都轉運使司)를 설립하고 가축이 먹는 꼴[芻秣, 糧草]을 전담케 했다. 그러나 곧 폐지되었다. 이후 무종(武宗) 카이산-쿨룩 카간은 1311년에 군목감(群牧監)을 세워 관리의 직급을 정이품(正二品)을 정했으며, 태경(太卿), 소경(少卿), 감승(監丞) 등의 관원을 두고 중궁위하(中宮位下)에 소속된 자축(孳畜)을 관할케 했다. 인종(仁宗) 아요르바리바드 카간(Ayurbaribad Khagan, 1285년생, 1311.3 ~ 1320.1)이 등극한 후 1311년 7월 군목정감(群牧正監)을 두고 몽골군의 목지를 관장했는데, 직급은 정삼품(正三品)이다. 군목감은 영종(英宗) 소디팔라 카간(Suddhipala Khagan, 1303년생, 1320.1~1323.9) 때인 지치(至治) 3년(1323)에 폐지되었다. 이후 다시 혜종(惠宗) 토곤-테무르 카간(Togun-Temür Khagan, 1320년생, 1333.6 ~ 1370.4) 때인 지원(至元) 원년(1335)에 다시 부활하여 휘정원(徽政院)에서 군목(群牧)을 전담하게 했는데, 그 범위는 타타르-올르스(Tatar Ulus, 達達兀魯思: 몽골초원), 케식텐(Keshigten, 怯薛丹), 각곳의 아이막(Ayimag, 愛馬)에 이르렀다.

이외 도지감(度支監), 경정감(經正監, 1311년 설치), 내정사(內正司), 상사사(尙舍寺, 1294년 설치), 난유감(闡遺監, 1283년 설치), 상목소(尙牧所, 1311년 설치), 풍운서(豐閭署), 부정사(府正司, 1283년 설치), 전목감(典牧監, 1329년 설치), 성안국(成鞍局, 1263년 설치), 양산안국(羊山鞍局, 1281년 설치), 전피국(甸皮局, 1270년 설치), 잡조쌍선국(雜造雙線局), 열피국(熱皮局, 1283년 설치), 연피국(軟皮局, 1288년 설치), 사피국(斜皮局, 1283년 설치), 초설국제거사(貂鼠局提舉司, 1283년 설치), 초서국(貂鼠局, 1282년 설치), 염국(染局, 1283년 설치), 숙피국(熟皮局, 1269년 설치) 등의 목축관련기관 등이 있었다.<sup>5)</sup>

## (2) 말 사육 전문인조직

대원올로스는 역사상 마필의 관리에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왕조이다. 중앙에는 태복사를 설치하여 마정을 전담케 하고 초지가 풍요로운 지역에는 양마천호(養馬千戶)를 두고 말 사육에 전력을 기울였다. 대몽골(원)제국의 한 특징은 중상주의적 경제관에 따른 호적제도이다. 세계 역사상 온 나라의 백성들을 민족, 종교, 직업을 기준으로 호적과 세금 및 부역 제도를 만든 나라는 대몽골제국과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가 유일하다.

유목을 기반으로 하는 대몽골제국의 호적제도는 군정일치의 조직인 천호제(千戶制,

5) 이 기관들의 업무와 존폐시기에 대해서는 王磊, 張法瑞, 「略論元代的馬政」 『古今農業』 2011-1, p.63-66을 참조.

Minggan-u noyan)와 케식텐(Keshigten)제가 결합된 조직이며, 농업과 상업, 수공업 등을 포함한 대원올로스의 호적제도는 군호(軍戶), 민호(民戶), 장호(匠戶) 등 수십 종의 세밀한 직종으로 정교하게 나누어진 제색호계(諸色戶計)이다.<sup>6)</sup>

제색호계란 몽골의 케식텐(Keshigten) 조직처럼 어떠한 호계(戶計)를 불문하고 일단 호적에 가입되면 대대로 상속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탈퇴할 수 없는 세습호계(世襲戶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색호계는 정복지역의 확장과 통치의 안정에 따라 서서히 구축되고 정비되어 나갔다.<sup>7)</sup> 따라서 말의 사육에 관련된 양마호(養馬戶)도 세밀하게 조직되었고, “천호와 백호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직을 이어간다.”<sup>8)</sup>처럼 세습되었다. 원대의 양마호 제도는 명대(明代)에도 계승되었으나 그 성격과 운영에는 차이가 많다.<sup>9)</sup>

6) 대몽골(원)제국의 호적제도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분야에 속한다. 이는 북방민족의 사상적 특징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사회·경제·군사·정치·문화적 현상 등을 서로 연계시키지 못한 면도 그 한 원인을 이루고 있다. 대원올로스의 호적제도에 諸色戶計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黃清連, 「元代戶計의劃分及其政治社會地位」 『台灣大學歷史學報』 2, 1974 ; 상동, 「元代諸色戶計의經濟地位」 『食貨』 6-3, 1976 ; 상동, 「元代戶計制度研究」 台北, 1977 ; 高樹林, 「元朝民戶計研究:元朝“諸色戶計”研究之一」 『河北學刊』 1993-2 ; 상동, 「元朝匠戶戶計研究:元朝“諸色戶計”研究之二」 『河北學刊』 1993-5 ; 상동, 「元朝冶煉戶計研究:元朝“諸色戶計”研究之三」 『中國經濟史研究』 1994-3 ; 吳偉, 姜茂發, 「我國元代戶籍分類制度研究」 『寧夏社會科學』 2009-6 등이 있다.

7) 대몽골제국에서 행해진 두 차례의 대규모 호적 작성은 1235년 어거데이카간이 행한 乙未籍, 다음은 1252년 멩케카간 시대의 壬子籍인데, 이에 대해서는 愛宕松男, 「蒙古人政權治下の漢地に於ける版籍の問題—特に乙未年籍壬子年籍及び至元7年籍を中心として—」 『羽田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 京都, 1950 및 「蒙古人統治下の漢地における版籍の問題」 『元朝史』 東京, 1988을 참조. 그리고 대원올로스의 코빌라이카간(Khubilai Khagan)이 즉위한 후 몇 차례의 호적구축을 거쳐 남송 평정한 후인 지원(至元) 27년(1290)에 전국의 호적을 완성했다. 대원올로스의 호적등기문서를 鼠尾文簿라고 한다. 코빌라이카간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중하 3등호로 나누고 다시 각 등급을 3급으로 세분했는데, 이를 三等九甲이라 부른다. 이 호적등기문서에 따라 『通制條格』 권17의 “科征差發,據站戶馬錢毯應,打捕鷹房合納皮貨·鷹隼,金銀鐵冶合辦本色,及諸色戶所納物貨,並驗定到鼠尾合該鈔數,折算送納”라는 기록처럼 각 호의 賦稅와 差役 등이 정해진다. 명나라도 대원올로스의 제도를 본 딴 鼠尾冊이 존재하고 있다(『明史』 「食貨志」 二: “役以應差,裏甲除當復者,論丁糧多少,編次先後,曰鼠尾冊,按而征之”). 대원올로스의 호적제도는 그 뒤를 이은 漢族의 명나라에게도 대부분 계승되었다. 명나라의 호적제도는 대원올로스 말기의 원적을 기본으로 한 洪武 2년 발표의 “凡軍·民·醫·匠·陰陽諸色戶,許以原報抄籍爲定,不許妄行變亂,違者治罪,仍從原籍”이라는 칙령을 근거로 삼았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李龍潛, 「明代軍戶制度淺論」 『北京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82-1을 참조.

8) 『元史』 卷100 「馬政」: “有千戶·百戶,父子相承任事”. 『高麗史』 「忠烈王世家」의 기록① “(1276.8)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以馬百六十匹來牧”, ② “(1277.10)耽羅達魯花赤塔刺赤如元”, ③ “(1278.2)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④ “(1278.9)耽羅達魯花赤塔刺赤奏”, ⑤ “(1281.9)塔刺赤於全羅…皆爲脫脫不孫”, ⑥ “(1283.9)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塔刺赤享王,獻二馬,求婚,以內侍鄭孚女妻之”)과 『元史』의 기록① “失里伯(Silbi),蒙古人,祖怯古里禿(Kegültü),從太祖經略西夏有功,又隸諸王朮赤台(Jürchedei),領寶兒赤(Ba'urchi),與金人戰,殁于陣,父莫刺合(Murakha)嗣,從征阿藍答兒(Anandar)亦有功,世祖賜以白金五十兩,失里伯世其職,由樞密院斷事官爲河南行中書省斷事官,至元七年(1270),佩金虎符,引水軍四萬攻襄陽,八年(1271)七月,宋將范文虎來援,失里伯敗其軍,進圍樊城,先登,戰于鹿門,與諸軍擒其將張貴,十年(1273),遷昭勇大將軍,爲耽羅國招討使,奉旨入見上都,改管軍萬戶,領襄陽諸路新軍,從丞相伯顏(Bayan)等渡江,破獨松關,下長興,取湖州,行安撫司事,十四年(1277),授湖州總管,進鎮國上將軍,淮西道宣慰使,十八年(1281)卒,子塔刺赤(Tarchi),曲靖等路宣慰使”(『元史』 卷133 「失里伯傳」), ② “[二十一年(1284)春正月]立耽羅國安撫司 … [秋七月]江淮行省以占城所遣太半達連紮赴關,及其地圖來上,塔刺赤言,“頭輦哥國王出戌高麗,調旺速等所部軍四百以往,今頭輦哥(Terigülanggi)已回,留軍耽羅,去其妻子已久,宜令他軍更戌.”伯顏等議,以高麗軍千人屯耽羅,其留戌四百人縱之還家,從之”(『元史』 卷13 「世祖本紀」), ③ “[二十九年(1292)八月]壬子,詔塔刺赤、程鵬飛討黃聖許,劉國傑駐馬軍戍守. … 高麗、女直界首雙城告饑,敕高麗王於海運內以粟賑之”(『元史』 卷17 「世祖本紀」), ④ “[四年(1338)十二月]以奴列你他(Nigülesültei)代其父塔刺赤爲耽羅國軍民安撫使司達魯花赤,錫三珠虎符”(『元史』 卷38 「順帝本紀」))을 참조할 경우 탐라의 馬政을 책임지는 인물의 家系가 ① 怯古里禿(Kegültü), ② 莫刺合(Murakha), ③ 失里伯(Silbi), ④ 塔刺赤(Tarchi), ⑤ 奴列你他(Nigülesültei)처럼 나타나고 있다.

9) 元代的 養馬戶는 明代의 馬戶제도로 계승되었다. 馬戶는 牧戶라고도 칭하는데, 官馬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백성들을 말한다. 명나라 洪武 6년(1373) 2월 養馬의 법을 정했는데 河北, 河南, 山東, 江蘇, 安徽 지구의 농민들로 馬戶를 충당했다. 명나라 초기에는 糧食馬戶와 市民馬戶 두 종류가 있었다. 養馬에는 種馬, 表馬, 寄養馬

『원사』에는 대칸의 친위대인 케식텐(Keshigten)의 직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케식텐(Keshigten: 호위군)이 담당하는 직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활과 화살을 찬 인물은 코르치(Khorchi, 火兒赤), 송골매를 관리하는 인물은 시바오치(Shiba'uchi, 昔寶赤), 새매를 관리하는 인물은 고로치(Gorochi, 怯憐赤), [대칸의] 자를릭(Jarlig, 聖旨)을 작성하는 인물은 자를릭치(Jarligchi), 대칸의 문사(文史)를 쓰는 인물은 비칙치(Bichigchi, 必闡赤: 일반적으로 書記라 번역), 음식을 끓이고 익혀 식사를 올리는 인물은 바오르치(Ba'urchi, 博爾赤: 일반적으로 요리사라 번역), 칼을 찬 인물은 울도치(Ulduchi, 云都赤), 종마(從馬)를 관리하는 인물은 커덜치(Ködölchi, 闊端赤), 성문을 지키는 인물은 발라가치(Balagachi, 八刺哈赤), 술을 관장하는 인물은 다라치(Darachi, 答刺赤), 수레를 관리하는 인물은 올라치(Ulagachi, 兀刺赤), 말을 관리하는 인물은 모린치(Morinchi, 莫倫赤), 내부(內府)에서 천막과 의복을 담당하는 인물은 수쿠르치(Sükürchi, 速古兒赤), 낙타를 관리하는 인물은 테메게치(Temegechi, 帖麥赤), 양을 관리하는 인물은 코니치(Khonichi, 火你赤), 도적을 잡는 인물은 콜라가치(Khulagachi, 忽刺罕赤), 음악을 연주하는 인물은 코르치(Khurchi, 虎兒赤)라 한다. 또 충성스럽고 용감한 인물은 바아토르(Bagatur, 霸都魯), 용감하고 무적인 인물은 바토(Batu, 拔突) 등 그 이름과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대칸의 좌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로, 반을 나누어 일을 맡는다. 4개반으로 구성된 케식텐 제도도 역시 그러하며 케식텐의 사령관이 이들을 관장한다.<sup>10)</sup>

이 가운데 나타나는 커덜치(Ködölchi, 闊端赤)와 모린치(Morinchi, 莫倫赤)가 말의 사육에 관계된 직종들이다. 이 직종들은 원대 관영목장의 확대발달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었는데, 『원사』나 당대의 문헌에 기록된 악타치(Agtachi, 阿塔赤, 馴馬官), 오나가치(Unagachi,

등 3종류가 있다. 馬戶는 매년 1마리의 망아지의 생산의무(1425년부터는 2년에 1마리) 외에 말의 건강까지 책임져야 했으며, 병이 들 경우 전액을 배상해야 했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馬戶는 “孳牧種馬一有倒失, 隨即買補, 相因無窮, 孳生馬駒今年印記, 明年搭配, 又明年算駒, 相繼不絕, 算駒之中, 有定駒未成者, 有顯駒而未墜胎者, 總爲虧欠, 俱在賠償, 官吏畏責, 未免追並, 小民賣田產, 鬻男女以充其數, 苦不可言”(『明經世文編』卷81, 「徐恪·寬民力以修馬政疏」), “民間官馬爲累, 一馬在家, 朝夕餵養, 至縛其身, 不得奔走衣食”(明·楊時齊, 『皇朝馬政記』卷1, 「馬戶」)라는 기록처럼 큰 고통을 받고, 파산하는 집이 많았다. 명대 초기 “강남의 재난은 양곡이 으뜸이고, 하북의 재난은 말이 으뜸이다(江南之患糧爲最, 河北之患馬爲最)”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러한 사회상은 결국 響馬盜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 響馬는 華北지역에서 활동한 馬賊의 일종이다. 響馬란 명칭은 이들이 악탈에 앞서 먼저 響箭을 발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 10) 『元史』卷99 「兵志·宿衛」: “其怯薛執事之名, 則主弓矢、鷹隼之事者, 曰火兒赤、昔寶赤、怯憐赤, 書寫聖旨, 曰扎里赤, 爲天子主文史者, 曰必闡赤, 親烹飪以奉上飲食者, 曰博爾赤, 侍上帶刀及弓矢者, 曰云都赤、闊端赤, 司閽者, 曰八刺哈赤, 掌酒者, 曰答刺赤, 典車馬者, 曰兀刺赤、莫倫赤, 掌內府尚供衣服者, 曰速古兒赤, 牧駱駝者, 曰帖麥赤, 牧羊者, 曰火你赤, 捕盜者, 曰忽刺罕赤, 奏樂者, 曰虎兒赤, 又名忠勇之士, 曰霸都魯, 勇敢無敵之士, 曰拔突, 其名類蓋不一, 然皆天子左右服勞侍從執事之人, 其分番更直, 亦如四怯薛之制, 而領於怯薛之長”. 원문에서 “侍上帶刀及弓矢者, 曰云都赤、闊端赤”는 『元史』 편찬자가 뜻을 오해한 부분으로 “及弓矢者…闊端赤”는 앞 문장인 “則主弓矢…曰火兒赤”의 중복에 불과하며, 闊端赤은 전쟁할 때 군사를 따라 이동하는 4~5 마리의 종마(從馬) 관리자를 가리킨다. 이 부분의 바른 문장은 “侍上帶刀及管從馬者, 曰云都赤、闊端赤”이다. 이외 케식텐의 관직으로 통역관인 켈레메치(Kelemechi, 怯里馬赤), 표범전문사육자인 바르스치(Barschi, 巴兒赤), 이동과 야영을 담당하는 농토치(Nuntugchi, 農土赤), 거세군마를 관리하는 악타치(Agtachi, 阿黑塔赤), 수레 등을 고치는 모둔치(Modunchi), 맹견 관리자인 구유치(Güyüchi, 貴由赤) 등이 있다. 참고로 彭大雅·徐霆의 『黑韃事略』에도 등장하는 올라치에 대해서는 丁國范, 「釋“兀刺赤”」 『元史論叢』 1, 1982를 참조.

兀奴忽赤, 一歲馬駒倌), 아도치(Adugachi, 阿都赤, 馬倌), 이시게치(Isigechi, 亦兒哥赤, 羯羊倌), 이마치(imagachi, 亦馬赤, 山羊倌), 코니치(Khonichi, 火你赤, 羊倌) 등의 명칭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원사』에는 말의 사육에 관계된 전문직종의 인물들을 “말 키우는 사람을 카치(Khachi, 哈赤), 카라치(Kharachi, 哈刺赤)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카치(Khachi, 哈赤)는 『고려사』에 목호(牧胡)라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어는 『원사』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원대 몽골어인 카치(Khachi)가 무슨 단어에서 유래되고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는 몽골 역사학자 작치드-세친(Jagchid-Sechin)의 지적처럼<sup>12)</sup>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sup>13)</sup>

카라치(Kharachi, 哈刺赤)는 『원사』 「토토크(Togtokha)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미루어볼 때 암말(牝馬)을 관리하면서 말젖술(ayirag chege, айраг цэгрээ : 馬乳酒, 馬潼)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는 인물을 말한다.

반도찰(班都察)은 자신이 거느리는 부족과 함께 항복했으며, 메게스(Meges, 麥怯斯)성을 정벌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리고] 킵차크(Kipchak, 欽察)인 100명을 거느리고 세조(코빌라이카간)를 따라 대리(大理)국과 남송을 정벌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는 강직하고 용감함으로 칭송받았으며, 항상 [코빌라이카간을] 좌우에서 모셨다. 말떼를 관장하면서 해마다 말젖술을 바쳤다. [그가 바치는 말젖술의] 색깔은 푸르면서 아주 맛이 있어 “검은 말젖술(Khara ayirag chege)”이라 불렸다. 이로 인해 그에 속한 사람들은 카라치(哈刺赤)라 불렸다.<sup>14)</sup>

그러나 한유림(韓儒林)은 카라치가 원래 암말의 사육을 관리하는 자였지만 원대에 들어와 이 말이 종마(從馬), 말, 낙타를 치는 사람이나 그 곳에 예속된 사람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5)</sup> 필자는 한유림의 이 같은 해석은 카라치(Kharachi, 哈刺赤)와 카치(Khachi, 哈赤)를 동일시 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sup>16)</sup> 카라치는 역시 작치드-세친의 지적처럼

11) 『元史』卷100 「兵志・馬政」: “牧人曰哈赤, 哈刺赤”

12) 札奇斯欽, 「說元代的馬政」 『蒙古史論叢(下)』 p.849 註⑨

13) 필자는 카치(Khachi, 哈赤)란 “태정제 원년(1324) 10월 13일 太僕卿 渾丹寺丞 塔海 등이 상주하기를 耽羅로부터 소 83마리가 이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곳의] 땅과 물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哈赤에게 인도한 뒤 이들을 3살 난 암소로 바꾸어 낙인을 찍고 관아에 들이기를 허락하기를 바라나이다(泰定元年(1324)十月十三日, 太僕卿渾丹寺丞塔海等奏, 自耽羅起至牛八十三頭至此, 不伏水土, 乞以付哈赤, 令變換作三歲乳牛, 印烙入官, 奉旨准”(失名, 『大元馬政記』台北廣文書局1972年本), “哈赤牧放官羊…哈赤羊群”(상동) 등의 기록을 참조할 때 말이나 소, 양에 이르기까지 목축을 전업으로 다루는 자란 총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오늘날 목동이나 목민, 목축업자를 뜻하는 말치(malchi, малч)나 말친(malchin, малчин)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선에서 『고려사』를 편찬할 때 탐라의 몽골 牧人들을 특정한 명칭 없이 牧胡라 표기한 것도 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에서 말치기를 뜻하는 데우리는 공식명칭이 아닌 탐라 독특한 명칭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박원길,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 - 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제주도연구』 28, 2005, p.12를 참조.

14) 『元史』卷128, 「土土哈(Togtokha)傳」: “班都察, 舉族迎降, 從征麥怯斯有功, 率欽察百人從世祖征大理, 伐宋, 以強勇稱, 嘗侍左右, 掌尙方馬畜, 歲時捫馬乳以進, 色清而味美, 號黑馬乳, 因目其屬曰哈刺赤”. 검은 말젖술(Khara ayirag chege)은 “최상의 말젖술”이란 뜻이다. 몽골어에서 검은 색을 나타내는 카라(Khara)는 “힘센, 최상의”란 뜻도 지니고 있다. 『元史』 「兵志・馬政」에는 “醞都者, 承乳車之名也”처럼 醞都가 등장하는데 이는 몽골어로 마실 것을 뜻하는 umda(умд)의 음譯으로 여기에는 말젖술도 포함된다.

15) 韓儒林, 「元代閼端赤考」 『穹廬集』上海, 1982, pp.115-119. [「元代閼端赤考」의 原揭載誌는 『華西大學中國文化研究所集刊』 1-4, 1941이다.]

16) 필자는 哈赤의 성격이 전문 분업화된 직책을 가리키는 명칭보다는 『大元馬政記』(台北廣文書局1972年影印本)의 “태정제 원년(1324) 10월 13일 太僕卿 渾丹寺丞 塔海(Takhai) 등이 상주하기를 耽羅로부터 소 83마리

럼 17) 암말을 관리하면서 말젖술을 만드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 (3) 전국 14개 국영목장

대원올로스의 목장은 국가소유의 국영목장과 제왕(諸王)의 유목지 등 왕부(王府)에 소속된 개인소유의 사유목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사유목장은 초장(草場)이라고 불렸다. 코빌리카간의 즉위 이전 몽골의 국영목장은 모두 중원(中原) 이북의 유목지역에 위치해 있다.<sup>18)</sup> 『원사』 등 중국측 문헌에는 대원올로스 초기 14개의 국영목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성립시기가 언제부터인가는 그것이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영목장이 중원과 남방에 설치된 때는 『원사』의 “성종(成宗)이 즉위했다. [정사렴(程思廉)]을 하동산서렴방사(河東山西廉訪使)로 임명했다. 태원(太原)에서 한해에 제왕(諸王)의 낙타와 말 1만 4천여 마리를 키우는데, [정]사렴이 [대칸에게] 1천 마리만 사육하기를 청했다.”<sup>19)</sup>라는 기록을 중심으로 성종(成宗) 테무르-얼제이투 카간(Temür Öljeitü Khagan, 1265년생, 재위 1294.4 ~ 1307.1)의 즉위 후로 간주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고려사』의 기록을 참조할 경우 1276년에 탐라 국영목장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코빌리카간 시기 그 대략적인 구상이 정해져 있으며 테무르-얼제이투 카간 시기의 중원 및 남방 확장은 그 구상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고려사』의 해당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라 섬은 옛날 원나라 세조의 목마장<sup>21)</sup> ... [1374년] 무신(戊申)에 황제[주원장]가 예부주사(禮部主事) 임밀(林密)과 자목대사(孳牧大使) 채빈(蔡斌)을 보냈다. 중서성(中書省)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성지(聖旨)를 받들었다. 이전에 사막[몽골]을 정벌하러 나갈 때 길이 멀어 말이 많이 손실되었고 이번에 대군이 또 정벌하러 나가게 되었다. 나는 ‘고려국은 이전 원나라 때 말 2~3만 마리가 탐라에서 키웠으며, 그에 따라 새끼들도 매우 많이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서성이 [황제의] 문서를 가진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국왕에게 주고 설득한 뒤, 그[고려국왕]가 좋은 말 2천 마리를 가려 뽑아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문하평리(門下評理) 한방언(韓邦彦)을 탐라에 보내어 말을 가져오도록 하였다.<sup>22)</sup>... 가을[秋] 7월 을해

가 이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곳의] 땅과 물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하赤에게 인도한 뒤 이들을 3살 난 암소로 바꾸어 낙인을 찍고 관아에 들이기를 허락하기를 바라나이다(泰定元年(1324)十月十三日, 太僕卿渾丹寺丞塔海等奏, 自耽羅起至牛八十三頭至此, 不伏水土, 乞以付哈赤, 令變換作三歲乳牛, 印烙入官, 奉旨准).”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말이나 가축에 대한 전문가라는 포괄적인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7) 札奇斯欽, 「說元代的馬政」 『蒙古史論叢(下)』 p.849 註⑨

18) 『元史』卷160 「徐世隆傳」: “中統元年(1260), 擢燕京等路宣撫使, 世隆以新民善俗爲務, 中書省檄諸路養禁衛之羸馬, 數以萬計, 芻秣與其什器, 前期戒備. 世隆曰, 國馬牧於北方, 往年無飼於南者, 上新臨天下, 京畿根本地, 煩擾之事, 必不爲之, 馬將不來”

19) 『元史』卷163 「程思廉傳」: “成宗即位, 除河東山西廉訪使, 太原歲飼諸王駝馬一萬四千餘匹, 思廉爲請, 止飼千匹”

20) 이러한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논자가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編著, 『蒙古族通史(電子版)』(民族出版社, 2001), 「元朝的馬政以及畜牧業概況」條이다.

21) 『高麗史』卷137 「辛禡傳」: “耽羅之島, 昔元世祖牧馬之場”

22)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 “[1374]戊申, 帝遣禮部主事林密·孳牧大使蔡斌來, 中書省咨曰, 欽奉聖旨, 已前征進沙漠, 爲因路途遙遠, 馬匹多有損壞, 如今大軍又征進, 我想高麗國, 已先元朝曾有馬二三萬, 留在耽羅牧養, 孳生儘多, 中書省差人將文書去, 與高麗國王說得知道, 教他將好



(乙亥)에 한방언이 제주에 이르니 합적(哈赤)인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와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감히 세조황제가 놓아기르도록 한 말(馬)을 어떻게 감히 대명(大明)제국에 바치겠는가.”라고 하면서 다만 말 3백 마리만 보냈다.<sup>23)</sup> … (1374년) 명태조가 임밀(林密) 등을 보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주의 말 2천 필을 가져다 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주 합적(哈赤)인 석질리필사와 초고독불화, 관음보 등이 3백 필 밖에 보내지 않았으므로 임밀 등이 분노하였다.<sup>24)</sup>

대원올로스의 국영목장은 코빌라이카간 시기에 그 대략이 정해져, 테무르-알제이투 카간 때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사』에는 14개 국영목장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으며, 일부 목장의 경우 그 세습담당자들의 이름도 소개되어 있다.

그 유목지는 동쪽은 탐라, 북쪽은 코리-토마드(Khuri-Tumad, 火里禿麻), 서쪽은 감숙(甘肅), 남쪽은 운남(雲南) 등에 이르며, [국영목장은] 14곳이다. 상도(上都) 및 대도(大都)에서부터 옥니백아(玉你伯牙), 제에렌-케에르(Jegeren-Keger, 折連怯呆兒: 사슴의 초원)에 이르는 만 리의 곳이 모두 목지이다. … 14곳의 국영목장은 각기 천호와 백호가 있는데 그 이름과 숫자는 다음과 같다. 동로(東路)인 제에렌-케에르 등처, 옥니백아(玉你伯牙)와 상도 주위, 카라-무렌(Khara Müren, 哈刺木連: 검은 물) 등처, 아로-코마키(Aru Khomaki?, 阿刺忽馬乞) 등처, 알근천(Ökin Keger?, 斡斤川) 등처, 아차-토보칸(Acha Tobukhan?, 阿察脫不罕), 감주(甘州) 등처, 좌수(左手, Jegün gar) 영평(永平) 등처, 우수(右手, Baragun gar) 고안주(固安州) 등처, 운남(雲南) 역해복설(亦奚卜薛), 노주(蘆州), 익도(益都), 코리토마드(Khori-Tumad, 火里禿麻), 고려(高麗)의 탐라국(耽羅國)<sup>25)</sup>

대원올로스 14개 국영목장의 위치에 대해 왕뢰(王磊)와 장법서(張法瑞)는 다음 도표와 같이 비정하고 있다.<sup>26)</sup>

지역	『원사』의 표기	비정(比定)지역 <sup>27)</sup>
몽골지구	火里禿麻	바이칼호수 주위
	斡斤川等處	헤를렌(Хэрлэн)강 상류지역
	阿察脫不罕	하르오스(Хар ус)호수 주위
	阿刺忽馬乞等處	내몽골 아바가나르(Abaga-nar)기 동북
	折連怯呆兒等處	내몽골 통요시(通遼市) 부근
	玉你伯牙・上都周圍	장가구(張家口) 서북

馬揀選二千匹送來，於是遣門下評理韓邦彥往耽羅取馬”

23) 『高麗史』卷44「恭愍王世家」：“秋七月乙亥韓邦彥至濟州，哈赤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等曰，吾等何敢以世祖皇帝放畜之馬，獻諸大明，只送馬三百匹”

24) 『高麗史』卷113「崔瑩傳」：“太祖高皇帝遣林密等，令我取濟州馬二千匹以進，哈赤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等，只送三百匹，密等怒”

25) 『元史』卷100「兵志・馬政」：“其牧地，東越耽羅，北踰火里禿麻，西至甘肅，南暨雲南等地，凡一十四處，自上都・大都以至玉你伯牙・折連怯呆兒，周迴萬里，無非牧地 … 一十四道牧地，各千戶、百戶等名目如左：東路折連怯呆兒等處，玉你伯牙・上都周圍，哈刺木連等處，阿刺忽馬乞等處，斡斤川等處，阿察脫不罕，甘州等處，左手永平等處，右手固安州等處，雲南亦奚卜薛，蘆州，益都，火里禿麻，高麗耽羅國”

26) 王磊，張法瑞，「略論元代的馬政」『古今農業』2011-1, p.69

	哈刺木連等處	내몽골 오르도스(Ordus) 지구
서북지구	甘州等處	감숙(甘肅) 장액(張掖)
대도(大都) 주위	左手永平等處	하북(河北) 노룡현(盧龍縣)
	右手固安州等處	하북 고안현(固安縣)
	益都	산둥(山東) 익도현(益都縣)
중원지구	蘆州,	안휘(安徽) 합비(合肥)
변경지구	雲南亦奚卜薛,	귀주(貴州) 필절지구(畢節地區)
	高麗耽羅國	제주도

전국 14개 국영목장의 분포도



14개 국영목장의 변천에 대해서는 당시 운영자체가 극비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몽골족통사』에는 『원사』 「진사겸전(陳思謙傳)」의 “열 곳의 말 키우는 곳을 관할한다[統領十監]”기록을 근거로 대략 문종(文宗) 퉁-테무르 카간(Tug Temür Öljeitü Khagan, 1304년생, 재위 1328.9~1329.1, 1329.8~1332.8)의 통치 기간인 지순(至順) 연간(1330~1332)에 이미 10개의 목장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sup>28)</sup> 그것이 실제 국영목장의 전체 숫자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영목장에서 키우는 말의 숫자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307년]대도로(大都路) 사육마 9만 4천 마리 … 외로(外路) 사육마 11만 9천여 마리”<sup>29)</sup>나 “지순(至順) 2년(1331) 9월, 중서성 관리가 말하기를 “이번 해 사육하는 말과 낙타가 14만 8천 4백 마리인

27) 비정지역에서 영문이나 몽골어 표기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참고로 왕뢰(王磊) 등의 비정지역에서 코리-토마드(Khori-Tumad, 火里禿麻)의 경우 바이칼호수 주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필자는 바이칼호 주변의 자연지리적인 조건상 바르코진(Barkhujin)-올홍성(Oldkhon aral)-이르쿠츠크로 이어지는 유목지대 가운데 오늘날 러시아연방 이르쿠츠크주(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오스찌-오르다(Усть-Орда) 보리아드인 자치구(2008년 폐지) 일대의 유목지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玉你伯牙은 『몽골비사(Monggol-un nigucha tobchiyan)』의 발음을 근거로 원음을 복원할 경우 “아주 부유한, 진정한 부자”란 뜻을 지닌 운네-바얀(Üne-Bayan, үнэ баян)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풍요한”이란 뜻을 지닌 어니-바얀(Öni-Bayan, өнө баян)으로 추정되며, 亦奚卜薛은 몽골어 Yeke Tushiya의 음역이라고 추정되지만 단언할 수 없다.

28)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編著, 『蒙古族通史(電子版)』(民族出版社, 2001), 「元朝的馬政以及畜牧業概況」條. 참고로 『元史』의 해당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331년 9월]方今西越流沙, 北際沙漠, 東及遼海, 地氣高寒, 水甘草美, 無非牧養之地, 宜設群牧使司, 統領十監, 專治馬政, 并畜牛羊”(『元史』卷163「程思廉傳」).

29) 『元史』卷22「武宗紀」: “[武宗의 至大元年(1308)九月]大都去歲飼馬九萬四千匹 … 外路飼馬十一萬九千餘匹”

데, 경성에서 6만 마리를 키우고, 나머지는 외군(外郡)에 나누어주어 키우도록 해야 한다. 마리당 추속(芻粟) 지급의 가격은 초(鈔) 사정(四錠)이다.”<sup>30)</sup>라는 기록을 참조할 때 매우 방대한 규모로 사육되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sup>31)</sup>

국영농장의 면적으로 볼 때 탐라가 제일 작았다고 생각된다. 제주 말 전문가인 장덕지 교수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제주에서의 말 사육 두수는 모든 점을 고려할 때 4만 마리가 최대치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sup>32)</sup> 사육규모도 전국 14개 국영목장에서 탐라가 제일 작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탐라는 목초지가 좋고 개량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닌 섬지역이다. 아마 탐라가 국영목장으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 (4) 민간 사육말의 구매와 징수 및 기타

태복사(太僕寺) 계통에서 관리하는 관마(官馬)의 대부분은 군수용이고, 일부가 황실에서 사용된다. 민간에 위탁하여 키우는 관마일 경우 그 규모는 호당 30~100마리이며, 매년 1필을 관아에 바쳐야 한다. 이외 전쟁이나 변경 지방에서 말이 부족할 때 임시방책으로 민간소유의 말을 구매하거나 강제 징발하는 괄마(括馬), 화매마(和買馬) 방식이 사용되었다.

괄마(括馬)는 쇄마(刷馬), 구쇄마(拘刷馬)라고도 말해지며, 그것은 관부(官府)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민간의 말을 구매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정부는 말 구매나 징수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물품으로 교환했는데 그 가격은 대부분 적정가 아래였고, 심한 경우 지불하지 않는 예도 있었다. 화매마(和買馬)는 화시마(和市馬)라고도 말하는데, 표면상으로는 관민 쌍방이 자진하여 마필을 사고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징수에 가까웠다.

『원문류(元文類)』에 수록된 『경세대전서(經世大典序)·마정(馬政)』에는 “화시(和市)와 구괄(拘括)은 [전쟁 등 급한 수요 때 사용되는] 비상제도이다(和市拘括, 非常制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원올로스 말기 홍건적(紅巾賊)이 봉기하여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때까지 군사수요를 채우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코빌라이카간 때에는 괄마(括馬)를 5회 실행했는데, 그 가운데 지원(至元) 11년(1274)은 5만 마리, 지원 23년(1286)과 지원 30년(1293)에는 모두 10만 마리 이상이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극심했던 토곤-테무르 카간 때인 지정(至正) 16년(1356)에 화매마(和買馬)는 불과 6만 마리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대원올로스의 민간소유의 말 수매정책이 제국의 통치 내내 실행된 강탈에 수탈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이 제도가 전쟁 등 비상시에만 가동되는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대 중원지역의 왕조에서 민간 소유의 말 징수가 전쟁 등 비상시에만 가동된다는 것을 제국의 통치원칙의 하나로 명기한 왕조는 대원올로스가 유일하다. 따라서 괄마(括馬)나 화매마(和買馬) 제도를 관례처럼 실행된 강탈제도라는 비난일색의 관정보다는 오히려 통치자들이 여러 여건 상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30) 『元史』卷35「文宗紀」: “[지순(至順) 2년(1331) 九月]中書省臣言, 今歲當飼馬駝十四萬八千四百匹, 京城飼六萬匹, 餘令外郡分飼, 每匹給芻粟價鈔四錠, 從之”

31) 코빌라이카간의 여름수도였던 上都의 목축현황이 당대의 詩人들의 시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胡助(1278~1355)의 “有牛羊及驃馬, 日過千百群”(『純白齋類稿』卷3「京華雜興詩」) 및 周伯琦(1298~1369)의 “群牧緣山放, 行營散野屯”(『周翰林近光集』)이다.

32) 이 담화는 2011년 3월 30일에 행해졌으며, 자세한 것은 박원길, 「영락제(永樂帝)와 제주도」 『제주도연구』 40, 2013, p.35 주(67)을 참조.

대원올로스의 통치이념과 과리를 지닌 이 제도를 통해 당시 사회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대몽골(원)제국은 유목제국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금제도와 말 보호제도도 특징적이다. 대몽골(원)제국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북방유목민에 대하여 추분양마(抽分羊馬)정책을 실행했다. 추분양마라는 것은 정부가 과징하는 일종의 목축세이다. 어거데이카간(Ögödei Khagan) 원년(1229) 8월 “몽골인으로 말을 100마리 이상 가진 자는 암말 1마리를 내고, 소를 100두 이상 가진 자는 암소 1마리를 내고, 양을 100 마리 이상 가진 자는 암양 1마리를 낸다. 이 제도를 영원히 준수한다.”<sup>33)</sup>는 백분의 일[1/100] 세금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 세금징수의 원칙은 테무르-얼제이투 카간 원정(元貞) 2년(1296)까지 지켜졌다. 이 세금제도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다.

이 세법은 테무르-얼제이투 카간 통치 때인 대덕(大德) 8년(1304) 정월에 약간 수정되었다. 즉 “제왕(諸王) 및 비주(妃主), 제로(諸路)에서 말이 있는 자는 10마리에서 하나를 취한다”<sup>34)</sup>는 조칙이 반포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부자에게 가해지는 부유세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3월, “제로(諸路)에서 키우는 양의 경우 100에서 30마리 사이에 한 마리를 취한다.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면 취하지 않는다.”<sup>35)</sup>는 조칙이 반포되어 양 30마리를 기준으로 한 마리를 취하는 삼십분의 일[1/30] 세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군호(軍戶)<sup>36)</sup>인 탐마치(探馬赤, Tamachi)군<sup>37)</sup>에 대해서만큼은 백분의 일 세법이 준수되었다.<sup>38)</sup>

대원올로스에서는 연회에서 말을 잡는 것을 금하거나<sup>39)</sup> 특정 기간에 사사로이 말과 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sup>40)</sup> 마필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가축을 훔칠 경우 9배로 배상하는 법과

33) 『元史』卷2「太宗紀」: “敕蒙古民有馬百者輸牝馬一, 牛百者輸牝牛一, 羊百者輸粉羊一, 爲永制”

34) 『元史』卷21「成宗紀」: “諸王, 妃主及諸路有馬者, 十取其一”

35) 『元史』卷21「成宗紀」: “詔諸路牧羊及百至三十者, 官取其一, 不及數者勿取”

36) 군사집단인 군호는 조직 면에서 정군호(正軍戶)와 첨군호(貼軍戶)로 나누어지며, 세부 직종별로는 포군(炮軍), 노군(弩軍), 수수군(水手軍), 사생군(射生軍), 둔전군(屯田軍), 여정군(餘丁軍), 질자군(質子軍), 독호군(獨戶軍), 점정군(漸丁軍) 등으로 세분화된다. 대원올로스에서 군호의 지위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군호와 연계된 준군사조직은 교통망을 이루는 참호(站戶)이다. 참호는 다시 지역과 환경에 따라 마참호(馬站戶), 수참호(水站戶), 우참호(牛站戶), 구참호(狗站戶), 체운참호(遞運站戶 = 運戶), 차호(車戶=車站戶) 등으로 세분된다. 대원올로스의 軍戶에 대해서는 矢澤知行, 「大元ウルスの“軍人”をめぐって」 『愛媛大學教育學部紀要』 35-1, 2002를 참조. 站戶에 대해서는 矢澤知行, 「モンゴル時代の兵站制度に關する一試論—大元ウルスとフレグ・ウルスの比較を通じて—」 『愛媛大學教育學部紀要』 32-1, 1999 및 「モンゴル時代河南江北諸軍團の兵站供給」 『中國哲學研究』 14, 2000 ; 默書民, 『蒙元郵驛研究』 (暨南大學 2004년 박사학위논문) 등의 논문을 참조.

37) 대몽골제국 초기 탐마치군은 각 부대에서 자체로 구성된 것과 각 부대에서 선발되어 별개의 계통을 이루고 있는 독립군단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최선봉에 배치되는 정예부대이다. 대원올로스 때에는 탐마치군이 鎭戍軍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탐마치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원길, 「몽골비사 195절의 표현 방식을 통해본 13~14세기 몽골군의 전술」 『몽골학』 14, 2003, p.283 주(26)을 참조.

38) 이에 대한 문헌기록은 ① 佚名, 『大元馬政記』 (台北廣文書局1972年本): “世祖皇帝聖旨, 探馬赤軍馬牛羊等一百口, 抽分一半一口, 與下戶貧乏軍接濟物力” ② 『元史』卷24「仁宗紀」: “八月丁卯, 敕探馬赤軍羊馬牛, 依舊制百稅其一” 등이 있다.

39) 『元史』卷105「刑法志」: “諸宴會, 雖達官, 殺馬爲禮者, 禁之”

40) 『元史』卷105「刑法志」: “諸每月朔望二弦, 凡有生之物, 殺者禁之, 諸郡縣歲正月五月, 各禁宰殺十日, 其饑饉去處, 自朔日爲始, 禁殺三日, 諸每歲, 自十二月至來歲正月, 殺母羊者, 禁之, 諸宴會, 雖達官, 殺馬爲禮者, 禁之, 其有老病不任鞍勒者, 亦必與眾驗而後殺之, 諸私宰牛馬者, 杖一百, 征鈔二十五兩, 付告人充賞。兩鄰知而不首者, 笞二十七, 本管頭目失覺察者, 笞五十七, 有見殺不告, 因脅取錢物者, 杖七十七, 若老病不任用, 從有司辨驗, 方許宰殺, 已病死者, 申驗開剝, 其筋骨即付官, 皮肉若不自用, 須投稅貨賣, 違者同匿稅法, 有司禁治不嚴者, 糾之, 諸私宰官馬牛, 爲首杖一百七, 爲從八十七, 諸助力私宰馬牛者, 減正犯人二等論罪, 諸牛馬驢驛死, 而筋骨不盡實輸官者, 一副以上, 笞二十七, 五副以上, 四十七, 十副以上, 杖六十七, 仍征所犯物價, 付告人充賞”

함께 형벌이 부가되었다.<sup>41)</sup> 통치기반이 동요하는 대원올로스 말기에는 말과 소를 훔칠 경우 범인의 코를 자르는 법률까지 제정되었다.<sup>42)</sup>

## 2. 사육법

『원사』에는 말의 사육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말때는 1000~100 마리나 30~50 마리로 무리지어 있다. 왼쪽 엉덩이에 관인을 찍었는데 [관인이 찍힌] 말들은 “큰 관인이 찍힌 말(大印子馬, Yeke Tamagatai adugu)”이라고 불렀다. 그 탐가(adugu tamaga)에는 병고(兵古), 평고(貶古), 활복천(闊卜川), 월사고(月思古), 알란(斡蘭) 등의 이름이 있다. 목인을 카치(Khachi, 哈赤), 카라치(Karachi, 哈刺赤)라고 부른다. 천호와 백호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직을 이어간다. 여름부터 겨울이 될 때까지 적당한 땅을 택해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며, 10월에 각자의 본거지에 도달한다. 조정에서는 매해 9월과 10월寺에서 관리를 역에 파견시켜 조사토록 한다. 말의 늘거나 모자람을 비교 조사할 때, 태어난 망아지가 있으면 곧바로 낙인을 찍어 계산에 집어넣도록 한다. 조사숫자에서 [말이] 늘거나 모자란 것이 보이면, 몽골, 회회, 한자로 된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는데, 그 전체 마릿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병으로 죽은 말의 경우, 그 숫자가 세 마리이면 목인은 큰 암말 한 마리를 보상해야 한다. 두 마리면 두 살 난 말 한 마리, 한 마리면 암양 한 마리를 보상해야 한다. 말이 없는 사람은 양, 낙타, 소로 대납해야 한다.<sup>43)</sup> … 방목하고 있는 나라말에게 해마다 소금을 지급하여 매월 호랑이날[寅日]에 그것을 먹인다. 그러면 말은 건강하고 병이 없다.<sup>44)</sup>

위의 기록은 말의 사육과 보고체계에 대한 전반적이면서 간략히 요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기스칸(Chinggis Khan) 시대의 여행기인 조공(趙珙)의 『몽달비록(蒙鞑備錄)』, 어거데이-카간 시대의 여행기인 팽대아(彭大雅)·서정(徐霆)의 『흑달사략(黑鞑事略)』이다.<sup>45)</sup> 이 기록들은 구유크-카간(Güyük Khagan) 시대의 여행기인 카르피니(John of Plano Carpini, 1182~1252)의 『몽골여행기

41) 『元史』卷105「刑法志」：“諸盜駝馬牛驢騾，一陪九，盜駱駝者，初犯爲首九十七，徒二年半，爲從八十七，徒二年，再犯加等，三犯不分首從，一百七，出軍，盜馬者，初犯爲首八十七，徒二年，爲從七十七，徒一年半，再犯加等，罪止一百七，出軍，盜牛者，初犯爲首七十七，徒一年半，爲從六十七，徒一年，再犯加等，罪止一百七，出軍，盜驢騾者，初犯爲首六十七，徒一年，爲從五十七，刺放，再犯加等，罪止徒三年，盜羊豬者，初犯爲首五十七，刺放，爲從四十七，刺放，再犯加等，罪止徒三年，盜系官駝馬牛者，比常盜加一等”

42) 『元史』卷39「順帝紀」：“[至元二年(1336)八月]強盜皆死，盜牛馬者剕，盜驢騾者黥額，再犯剕，盜羊豕者墨項，再犯黥，三犯剕，剕後再犯者死”

43) 『元史』卷100「馬政」：“馬之群，或千百，或三五十，左股烙以官印，號大印子馬，牧人曰哈赤，哈刺赤，有千戶·百戶，父子相承任事，自夏及冬，隨地之宜，行逐水草，十月各至本地，朝廷歲以九月·十月遣寺官馳驛閱視，較其多寡，有所產駒，即烙印取勘，收除見在數目，造蒙古·回回·漢字文冊以聞，其總數蓋不可知也，凡病死者，三則令牧人償大牝馬一，二則償二歲馬一，一則償牝羊一，其無馬者以羊·駝·牛折納”，閻復(1236~1312)，『靜軒集』卷3「樞密句容武毅王碑」에도 말 사육에서 병으로 죽은 말의 보상에 대해 『元史』와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44) 『元史』卷35「文宗紀」：“所牧國馬，歲給鹽，以每月寅日啖之，則馬健無病”

45) 이 여행기들이 작성된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는 박원길, 「대몽골제국과 남송의 외교관계 분석」 『몽골학』 8, 1999, pp.6-24를 참조.

(History of the Mongols)』, 몽케-카간(Möngke Khagan) 시대의 여행기인 루브루크(William of Rubruck)의 『루브루크 여행기(The Journey of William of Rubruck)』와 함께 학계에서 1급 사료로 인용되는 당대의 몽골종합보고서로 그 속에 수록된 말 사육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몽달비록(蒙鞑備錄)의 기록】

몽골 땅은 수초가 풍요해서 양과 말[을 기르기에] 알맞다. 말은 처음 태어나서 1~2년은 초지에서 방목시킨다. [말이 3살이 되면] 거칠게 말을 타며 가르친다. [그리고 즉시 타지 않고] 3년[을 더] 방목시킨다. 그 다음에야 다시 [본격적으로] 말을 탄다. [말은] 이전에 순화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차거나 깨물지 않는다. 많은 수[의 말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도 조용하며 울음소리가 없다. 말에서 내려서는 [말고삐를] 당겨 매어둘 필요도 없으며 [말] 역시 달아나지도 않는다. 성질이 매우 양순하다. 낮에는 풀을 먹이지 않으며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방목시킨다. 그들은 풀이 푸른가 [혹은] 시들었는가[라는 초지상태에] 따라 말을 들판에 방목시킨다. 새벽이 되면 안장을 엮고 말을 탄다. 결코 콩과 조[와 같은 곡식]류를 주는 법이 없다. 무릇 출정에는 군사마다 모두 몇 마리의 말을 가지고 나간다. 하루에 한 마리씩 바꿔가며 타기 때문에 말이 힘들거나 피곤해하지 않는다.<sup>46)</sup>

#### 【흑달사략(黑鞑事略)의 기록】

몽골의 말 : 들판에 방목하며 꼴은 없다. 6월에 푸른 풀을 많이 먹은 뒤에야 살이 오르고 튼튼해진다. 네살이 되면 거세한다. 따라서 건장하고 힘이 있으며 유순하고 성깔이 없다. [또] 바람과 추위에 잘 견디며 오래 산다. 거세하지 않으면 이와 반대로 된다. 또 쉽게 울부짖어 매복에 사용할 수 없다. 발굽을 얇게 깎아주기 때문에 돌을 겁내므로 철이나 판때기로 미늘을 씌워주는데 이것을 각삼(脚澁)<sup>47)</sup>이라 부른다. 달릴 때는 [풀을] 먹이지 않으며 안장을 푼 다음에는 반드시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매어둔다. 숨소리가 고르게 되고 네발굽이 식은 다음에야 물과 풀을 먹도록 풀어 놓는다. 목자를 올라치(Ulagachi, 兀刺赤)라 부르는데 [전체 올라치가 10이라면] 회회인(回回人)이 3을 차지하고 한인(漢人)이 7을 차지한다.

서정(徐霆)이 몽골인의 말 키우는 법을 살펴봄 : 봄에 군대를 해산한 뒤 전투에 참가했던 좋은 말들을 모두 목장에 풀어놓는다. [그리고는 서풍이 불어올 때까지] 타지 않는다. 서풍이 불어올 때가 되면 [말을] 잡아서 겔의 좌우에 묶어둔다. [그리고] 약간의 물과 풀만을 먹이면 한 달 후에는 군살이 빠지고 몸이 견실해진다. [이러한 말은] 수백 리를 타고 달려도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원정에도 능히 견딜 수 있다. 항상 길을 갈 때에는 [말이] 물과 풀을 먹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46) 趙珙, 『蒙鞑備錄』 「馬政」: “鞑國地豐水草, 宜羊馬, 其馬初生一二年, 即於草地, 苦騎而教之, 却養三年, 而後再乘騎, 故教其初是以不蹄齧也, 千百成群, 寂無嘶鳴, 下馬不用控繫, 亦不走逸, 性甚良善, 日間未嘗芻秣, 惟至夜方始牧放之, 隨其草之青枯, 野牧之, 至曉, 搭鞍乘騎, 並未始與豆粟之類, 凡出師, 人有數馬, 日輪一騎乘之, 故馬不困弊”

47) 王國維(1877~1927)는 『黑鞑事略箋證』(『蒙古史料四種』台北, 正中書局, 1962)에서 脚澁은 『五代史記』 「四裔附錄」의 “高居誨使于闐記, 自甘州西始涉磧, 甘州人教晉使者作馬蹄木澁, 木澁四竅, 馬蹄亦鑿四竅而綴之, 駝蹄則包以鼈皮乃可行”라는 기록이나 杜甫의 詩에 묘사된 “驄馬新鑿蹄”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미 唐人도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대개 신고(辛苦) 중에 물과 풀을 먹으면 살찌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병이 나기 쉽다. 이는 말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남인(南人)은 이와 반대로 하기 때문에 말에 병이 많다. [말의] 숫컷 가운데 아주 건장한 것은 종마(種馬)인 이랄마(移刺馬, Yila-ma)<sup>48)</sup>로 남겨두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세하기 때문에 말이 아주 건장하다. 이랄(移刺)은 즉 공마(公馬: 種馬)로서 거세하지 않는다. [종마는] 전적으로 암말무리를 관장하며 거세마 무리에는 집어넣지 않는다. 거세마와 암말은 각기 따로 무리를 짓는다. 말은 대부분 4~5백 마리로 한 무리를 이루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자는 단지 두 명의 올라치 뿐이다. [올라치는] 손에 계심철과(雞心鐵撻)를 잡고 [그것을] 채찍처럼 사용한다. 말들이 그것을 보면 [매우] 두려워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올라치들은 각기 자기가 관리하는 말들을 데리고 주인의 게르 앞에 둥글게 늘어선다. [그리고] 잠시 뒤 각기 흩어져 [목지로] 간다. 말들은 물을 마실 때 우물이 동시에 4~5마리밖에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지위에 따라 마시는 순번을 정한다. [지위가 높은 말들이] 와서 충분히 마시고 가면 다음 [순번의 말들이] 이른다. 만약 순번을 어기고 새치기하는 말이 있으면 올라치가 멀리서 철과(鐵撻)를 휘두른다. [그러면] 말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 감히 난동을 부리는 것이 없으며 아주 질서정연하다. 암말의 무리는 [즉] 이랄마 한마리가 50~60마리의 암말을 관리한다. [만약 한] 암말이 무리를 이탈하면 이랄마는 그 말을 깨물고 발로 차 반드시 데리고 온다. 혹은 다른 무리의 이랄마가 넘어올 경우 이쪽 무리의 이랄마는 반드시 그 [이랄마를] 깨물고 발로 찬다. [이랄마들이 암말과 망아지들을 무리별로] 장악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장관이다.<sup>49)</sup>

13세기 몽골인들의 말 사육법을 관찰한 이 기록들은 오늘날 몽골명마의 조련법과 비교해도<sup>50)</sup>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고 전문적인 기록이다. 아마 이러한 기록은 13~14세기 탐라에서 행해진 말 사육법과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말 사육에서 치명적인 것이 겨울에 눈이나 비가 내려 방목지의 풀이 얼어서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전개되는 것이다. 『원사』에도 폭설로 인해 말들이 대량으로 굶어죽는 사건들이 특기되어 있는데<sup>51)</sup>, 이를 몽골어로 조드(jud, зүд)라고 한다. 조드는 세부적으로 4

48) 移刺는 승리를 뜻하는 일라(Yila)의 거란어 음역이다. 徐霆이 몽골어인 아즈라가(Ajirga[n], азара[н]) 대신에 거란어를 쓰게 된 원인은 알 수 없다. 몽골인들은 거세하지 않은 種馬(эцэг мал, echige mal)인 아즈라가라고 부른다.

49) 彭大雅·徐霆, 『黑鞑事略』: “其馬, 野牧無芻粟, 六月壓青草始肥壯者, 四齒則扇, 故闊壯而有力, 柔順而無性, 能風寒而久歲月, 不扇則反是, 且易嘶駭, 不可設伏, 蹄鏗薄而怯石者, 葉以鐵或以板, 謂之脚澁, 凡馳驟勿飽, 凡解鞍必索之, 以仰其首, 待其氣調息平, 四蹄冰冷, 然後縱其水草, 牧者謂之兀刺赤, 回回居其三, 漢人居其七. 霆嘗攷, 鞑人養馬之法, 自春初罷兵後, 凡出戰好馬, 并恣其水草, 不令騎動, 直至西風將至, 則取而控之, 繫於帳房左右, 啖以些少水草, 經月後臙落而實, 騎之數百里, 自然無汗, 故可以耐遠而出戰, 尋常正行路時, 并不許其吃水草, 蓋辛苦中吃水草, 不成臙而生病, 此養馬之良法, 南人反是, 所以馬多病也, 其牡馬, 留十分壯好者, 作移刺馬種, 外餘者多扇了, 所以無不强壯也, 移刺者公馬也, 不曾扇, 專管騾馬群, 不入扇馬隊, 扇馬騾馬各自爲群隊也, 凡馬多是四五百匹爲群隊, 只兩兀刺赤管, 手執雞心鐵撻, 以當鞭箠, 馬望之而畏, 每遇早晚, 兀刺赤各領其所管之馬, 環立於主人之帳房前, 少頃各散去, 每飲馬時, 其井窟止可飲四五馬, 各以資次先後, 于于自來, 飲足而去, 次者復至, 若有越次者, 兀刺赤遠揮鐵撻, 俯首駐足, 無或敢亂, 最爲整齊, 其騾馬群, 每移刺馬一匹, 管騾馬五六十匹, 騾馬出群, 移刺馬必咬踢之使歸, 或他群移刺馬踰越而來, 此群移刺馬必咬踢之, 擊而有別, 尤爲可觀”.

50) 좋은 말의 특징과 조련법에 대해서는 О.Намнандорж, 『Монголын хурдан морины тухай』 УБ, 1957 ; Х.Лувсанбалдан, 『Морины шинж』 УБ, 1978 ; С.Жамбалдорж, 『Морин эрдэнэ』 УБ, 1996 등을 참조.

51) 『元史』에도 폭설로 인한 재해가 “以往歲(1287)北邊大風雪, 拔突古倫所部牛馬多死, 賜米千石”(『元史』卷15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강-조드(gang jud, ган зуд)이다. 강-조드는 여름철에 비가 내리지 않아 초원이 완전히 마른 상태를 말한다. 또는 계절에 걸맞지 않는 기후로 초원의 눈이 녹은 뒤 갑자기 다시 추워져 초원이 살얼음 층으로 덮인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둘째는 토오라이-조드(tugurai jud, туурай зуд)이다. 이는 지나치게 좁은 목초지에 가축이 집중되어 풀이 완전히 짓밟혀져 방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즉 인위적인 재해의 성격이 강하다. 셋째는 하르-조드(khara jud, хар зуд)이다. 이는 겨울 유목지에 눈이 내리지 않아 방목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넷째는 차가왕-조드(chagan jud, цагаа н зуд)이다. 이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가축이 풀을 뜯어먹을 수 없어 아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또 폭설로 인한 유목지의 부족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sup>52)</sup>

몽골에서 말에 도장을 찍는 것을 아도오-탐가(adugun-u tamaga, адуу тамг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다.<sup>53)</sup> 참고로 말의 사육법과 관련하여 몽골에서 사육되는 말의 나이별 명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말의 나이(Адууны нас) <sup>54)</sup>	
나이(нас)	명칭(нэрлэлт)
1	오나가(Унага, unag-a)
2	다가아(Дагаа, dagan), 사르바아(сарваа, sarbaga) <sup>55)</sup>
3	슈들렌(Шүдлэн, sidüleng) <sup>56)</sup>
4	하자알랑(Хязаалан, kijalang)
5	소요올롱(Соёолон, soyulang)
6	합치그 소요올롱(Хавчиг соёолон, khabchig soyulang)
7	손가흐 소요올롱(Сунгах соёолон, sunggakhу soyulang) 혹은 구이츠멜(гүйцмэл, güichemel) <sup>57)</sup>
8	이흐 나스(Их нас, yeke nas)
아즈라가(Азрага, ajarga: 거세하지 않은 종마)	

「世祖紀」), “[1301년 7월]稱海至北境十二站大雪, 馬牛多死, 賜鈔一萬一千餘錠”(『元史』卷20「成宗紀」), “[1331년 11월]興和路鷹坊及蒙古民萬一千一百餘戶, 大雪畜牧凍死, 賑米五千石”(『元史』卷35「文宗紀」)처럼 3번 등장하고 있다.

52) 몽골격언에는 “재해(jud, зуд)가 들 때는 개가 살피고, 걱정될 때는 라마승이 살핀다(зуд болоход нохой т аргална, зовлон болоход лам таргална)”라는 개와 라마승의 행태를 비교는 말이 존재하고 있다.

53)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말의 낙인에 대한 연구는 Х.Пэрлээ, 『Монгол түмний гарлыг тамгаар хайж с удлах нь』 УБ, 1976 ; Ж.Саруулбуян, А.Даваасамбуу, 『Монгол адууны тамганы ойллого』 УБ, 2008 ; Ж.Саруулбуян, 『Өвөг Монголчуудын утга соёлын морь дүрсэлгээ』 УБ, 2002 ; Пүрэвжав ын эрдэнэчулууны цуглуулга, 『Тэнгэрийн сүлд』 УБ, 2014 ; 백승정·박원길, 「한·몽 전통문양의 역사적 변천 - 탐가와 심장생을 중심으로 -」 『몽골학』 39, 2014 등의 논저를 참조.

54) 몽골인들은 나이를 만(滿, битүү, bitegüü)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국처럼 태어날 때부터 1살로 부르는 습속이 있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말을 분류할 때 태어난 시기에 따라 나이의 칭호가 애매하게 겹치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일부 몽골학자들은 말의 나이를 만으로 계산해 1세미만(오나가), 1세(다가아), 2세(슈들렌), 3세(하자알랑), 4세(소요올롱), 5세(부두웅, Бүдүүн, бүдүгүн, бүдүгүн: 성년이 된)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말은 이빨의 상태로 23살까지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 또 털 색깔에 따라 수많은 명칭으로 분류되는데,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몸체의 기본색깔과 그에 부수되는 색깔들이다. 몸체의 기본색깔에는 후렝(Хүрэн, күрэнг: 적갈색), 헤에르(Хээр, keger: 밤색), 제에르드(Зээрд, jegerde: 적황색), 차비차르(Цавьдар, chabidar: 갈기와 꼬리가 흰 빛이지만 일반적으로 밤색), 하르(Хар, khara: 검은색), хул(Хул, khula: 적색을



### III. 기마장비

#### 1. 에메엘(эмээл, emegel) 부분

에메엘이란 기마장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수송이나 승마용 말에 설치하는 안장(бүүрэг), 판(хавтас), 걸럼(гөлөм) 등으로 이루어진 마구(馬具)를 말한다. 에메엘은 말을 타는 사람이 가장 안락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이자, 말의 등에 가해지는 무게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58)</sup>

몽골의 안장은 기러기 모습의 사수안(射手鞍, шовхгор бүүрэг эмээл)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연원은 말을 타고 화살을 발사하는 파르티안 샤프트(Parthian shaft)와 조로모리(Jiruga mori, жороо морь) 주법에 있다.<sup>59)</sup> 즉 13세기 몽골의 에메엘은 모든 구성물이 기마사법(騎馬射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며<sup>60)</sup>, 오늘날 몽골의 에메엘도 13세기 당시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 13세기 몽골의 에메엘

에메엘의 구성물은 문학작품이나 격언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제

민 회색), 홍고르(Хонгор, khonggur: 황백색), 샤르가(Шарга, sirga: 크림빛 담황색), 보르(Бор, boru: 회색), 사아랄(Саарал, sagaral: 회백색), 할리온(Халиун, khaligun: 회갈색), 보오랄(Буурал, bugural: 백색), 알락(Алаг, alag: 얼룩무늬), 초오호르(Цоохор, chokhur: 얼룩무늬)가 있다.

55) 만으로 2살 된 망아지를 말한다.

56) 만 3세가 된 수컷 말은 우레에(үрээ, üriy-e) 암말은 바이다스(байдас, bayidasun)라고 부른다.

57) 말은 7살이 되면 이빨이 모두 솟아나는데, 이를 구이츠멜이라 한다. 구이츠멜은 허흐 샤르가(хөх шарга, köke sirga)라고도 부른다.

58) 본고에서 다루는 모든 기마장비들은 오늘날 할호족에게 전승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또 그 구조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Ч.Арьясүрэн, Г.Чингэл, Х.Нямбуу, 『Монгол ёс заншлын их тайлбар толь(I)』 УБ, 1992 ; Ч.Арьясүрэн, Ж.Бат-Ирээдүй, 『Монгол ёс заншлын их тайлбар толь(II)』 УБ, 2001 ; А.Доржготов, Ч.Сонгино, 『Зурагт толь』 УБ, 1998 ; Монгол хэл соёлын хүрээлэн, М онсудар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Монгол нүүдэлчдийн тайлбар толь(I)』 УБ, 2014 등의 기록에 의거했다.

59) 이에 대해서는 박원길,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 - 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제주도연구』 28, 2005, pp.5-13 및 상동, 「탐라에 스며든 몽골습속: 다리강가의 말과 제주도 조랑말」 『배반의 땅과 서약의 호수 - 21세기 한국에 몽골은 무엇인가 -』 서울, 민속원, 2008, pp.58-64를 참조.

60) 13세기 몽골의 에메엘에 대한 구조는 각주 (59)에서 언급한 논저를 참조.

시한 다음 에메엘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에메엘의 구성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간자가(ганзага, ganjuga-n)로 『몽골비사』나 서부지역의 전승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그대들의 칸부가 모든 백성들을 조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자신의 검은 머리에 간조가(말안장 끈)를

단단히 묶고(항상 생사의 경계에 몸을 두었다),

자신의 검은 피를 남보가(피혁주머니)에

집어넣었다(항상 몸을 위험에 노출했다)<sup>61)</sup>

불꽃의 탐가를 지닌 어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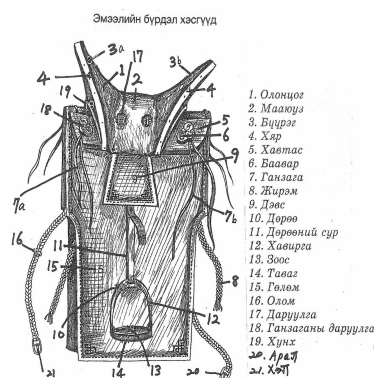
간자가 손잡이를 가진 어얼드!

갈단-보시고트 칸의 어얼드!<sup>62)</sup>

몽골 격언에는 “간자가 니일레흐(Ганзага нийлэх)”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생각을 하나로 합치다(санаа нэгдэн нийлэх)”란 뜻으로 일치·협력을 구할 때 흔히 쓴다.

다음은 에메엘의 종류와 구성물이다. 에메엘의 종류는 크게 할흐(Халх), 우젠크(Үзэмчин), 보리아드(Буриад), 토바(Тува) 등 부족별로 나누어지며, 내부적으로 체격이 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여자, 어린이, 속도가 빠른 말(хурдан морь)에 따라 안장의 형태가 차이를 갖는다. 체격이 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에메엘은 넓고 낮은 안장을 가지고 있으며, 은장식을 거의 붙이지 않는다. 소년들이나 여자들의 에메엘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수직 안장을 가지고 있으며, 은제 바아바르(баавар)와 다로올가(даруулга)가 붙어 있다. 어린이들과 빠른 말의 에메엘은 작고 휴대에 편리한 낮은 안장(эрвээлжин эмээл)을 가지고 있다.

에메엘의 구성물은 대체로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그 용도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올롱촉(олонцог, olungchug: 나무 안장을 감싸는 커버) 에메엘의 나무 안장에 덧대는 얇은 에스기(эсгий: 펠트)와 직물로 만든 커버를 에메엘린 올롱촉(эмээлийн олонцог)이라고 한다. 올롱촉의 길이와 넓이는 나무 의자에 맞춘다. 올롱촉을 골조에 밀착시킬 때 4개의 합타스(판)에 붙은 다로올가 혹은 바아바르를 사용한다. 올롱촉을 두껍게 만들면 안장은 작아지고, 사람이 자유롭게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롱촉의 색깔은 눈에 잘 띄는 원색계

열로 만든다.

② 마아유즈(мааюуз, mayuuja: 안장 위에 붙이는 작은 깔개방석)

61) 『몽골비사』 254절 : “khan echige tan-u khamug ulus-i bayi’ulurun khara teri’ü-ben ganjugalaju, khara chisu-ban nambugalaju.”

62) Гал тамгатай Өөлд! ганзага иштэй Өөлд! Галдан Бошготын Өөлд!

두 개의 부렉 사이에 위치한 에스기나 털로 만든 부드러운 사각형 깔개를 에메엘린 마아유즈(эмээлийн мааюуз)라고 부른다. 마아유즈는 올롱축 위에 두고 가운데를 합타스에 고정시킨다.

③ 부우렉(бүүрэг, бүгүрге : 안장에서 기러기 형태로 솟은 2개의 나무부분)

에메엘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수직형태를 지닌 2개의 직립한 부분의 나무를 에메엘린 부우렉(эмээлийн бүүрэг)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정착지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안장 부분이다. 부우렉과 합타스는 에메엘의 골조를 이루는 부분으로 “에메엘의 나무”라는 뜻을 지닌 에메엘린 모드(эмээлийн мод)라고 부르는데 그 재료는 대부분 자작나무(хус мод)로 만든다. 남송 때의 몽골종합보고서인 『흑달사략』에도 “몽골의 안장과 고삐는 가볍고 단출하여 달리기에 편하다. 무게는 7~8근(4.2~4.8kg)을 넘지 않는다. 안장은 기러기 날개처럼 앞은 솟아올라 있고 뒤는 평평하다. 따라서 회전할 때 어깨를 다치지 않는다. … 단지 백목(白木)을 사용하여 말안장을 만든다.”<sup>63)</sup>고 기록되어 있다.

안장의 앞쪽에 위치한 오르드-부우렉(урд бүүрэг: 남쪽의 부우렉)은 “아침에 태양이 솟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안장”이란 뜻의 “나란 부우렉(Наран бүүрэг)”, 뒤쪽의 호이트-부우렉(хойт бүүрэг: 북쪽의 부우렉)은 “초승달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달의 안장”이란 뜻의 “사란 부우렉(Саран бүүрэг)”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앞쪽의 부우렉은 수직으로 높게 솟아 있고, 뒤쪽의 부우렉은 약간 나지막이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사람이 에메엘 위에 앉아 갈 때 몸이 쾌적하게 고려한 것이다.

부우렉은 대부분 아주 강렬한 붉은 색으로 장식하며, 부우렉의 가장자리(테)는 다른 색깔로 입혀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도록 만든다. 두 개의 부우렉의 사이에 사람이 앉게 되는데, 이것을 “에메엘의 의자”라는 뜻의 에메엘린 소오달(эмээлийн суудал)이라고 부른다.

④ 하르(хяр, kir-a: 안장의 테두리 장식)

안장(부우렉)의 테두리를 따라 박은 장식을 에메엘린 하르(эмээлийн хяр)라고 부른다. 하르는 사슴뿔이나 광택이 나는 철, 기타 동물의 뼈로 만든다. 하르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은, 놋쇠 등에 허어말(хөөмөл: 쇠판을 눌러 무늬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기법) 방식으로 문양을 만든다. 하르는 뼈나 철제 못으로 박아 고정시킨다. 하르 주변의 나무인 부우렉의 테두리는 은을 붙여 마감한다.

⑤ 합타스(хавтас, khabtasu: 에메엘의 골조를 이루는 나무판)

안장(부우렉)의 아래에 위치해 올롱, 지렘, 더러언니-소르, 간자가, 옥소오르가(үгсүүргә: 올롱과 지렘을 에메엘의 합타스에 결합해 묶는 가느다란 가죽으로 만든 고리) 등을 묶는 평탄한 나무판을 에메엘린 합타스(эмээлийн хавтас)라고 부른다. 에메엘을 만들 때 합타스

63) 彭大雅·徐霆, 『黑鞑事略』: “其鞍轡, 輕簡以便馳騁, 重不盈七八斤, 鞍之雁翅, 前豎而後平, 故折旋而騰不傷… [霆嘗攷之] 止用白木爲鞍橋”. 참고로 고대 중국에서 무게의 기본 단위는 냥(兩)이며, 1냥은 37.5g이다. 그 위의 단위인 근(斤)은 16냥에 해당되며 무게는 600g이다. 오늘날 중국에서의 1근은 500g이다. 안장을 나무로 만드는 습관은 북방 아시아 최초의 유목제국인 匈奴의 射手鞍에서도 발견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O.J.Maenchen-Helfen, *The World of the Huns—Studies in Their History and Culture*-, Berkeley and London, 1973, p.208을 참조. 필자는 탐라에 진주한 몽골군이나 牧胡들의 경우 안장을 탐라에서 자생하는 비자나무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자나무는 북방의 자작나무의 보다 품질에서 두지 않는 데, 아마 몽골이 탐라를 국영목장으로 삼은 배경에는 섬 내에 밀집사육이 가능한 질 좋은 목초지 외에도 말과 관련된 물자들이 곳곳에 존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의 경사각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말의 등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나게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에메엘의 합타스 아래에 위치한 좌우로 틈을 내어 말의 등을 지탱해주는 공간부분을 악트(арт, agta) 즉 에메엘린 악트(эмээлийн арт)라고 한다. 부우렉과 합타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맣고 네모난 나무를 “에메엘의 물고기”란 뜻의 에멜린 자가스(эмээлийн загас)라고 부른다.

#### ⑥ 바아바르(баавар, bagabur: 안장의 금속장식)

합타스를 구성하는 네 개의 판에 위치한 다양한 모양을 지닌 장식품을 에메엘린 바아바르(эмээлийн баавар)라고 부른다. 바아바르는 사갈드라가(곤의 일종)가 흠어지는 것을 조여 누르는 역할도 한다. 바아바르 역시 허어말(хөөмөл) 기법으로 만든다. 바아바르나 다로올가 같은 장식품들은 에메엘린 토노그(эмээлийн тоног)라고 부른다.

#### ⑦ 간자가(ганзага[н], ganjuga-n: 안장 끈)

합타스를 구성하는 네 개의 판에 구멍을 뚫고 부드럽게 가공한 가는 가죽 끈을 꿰어 고정시킨 것을 에멜린 간자가(эмээлийн ганзага)라고 부른다. 말의 안장 중 나란 부우렉(Наран бүрэг) 아래에 있는 것을 오르드 간자가(урд ганзага: 남쪽의 간자가), 사란 부우렉(Саран бүрэг) 아래에 있는 것을 호이트 간자가(хойт ганзага: 북쪽의 간자가)라고 부른다. 간자가는 길이 50~60cm, 넓이 0.5cm, 두께 0.3cm~0.4cm의 가죽으로 만들며, 말고삐(морины жолоо)를 매고, 처더르, 토샤아, 타시오르(채찍), 짐 등을 묶는데 사용된다. 간자가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에메엘을 대표하는 상징어로 쓰인다.<sup>64)</sup>

#### ⑧ 지렘(жирэм, jirim: 고리가 없는 말의 복대 끈)

에메엘을 고정시키는 말의 복대 끈의 하나로 끝 부분에 고리가 없는 끈을 말한다. 에메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렘은 올룸의 고리구멍에 들어가 말을 배를 죄어 에메엘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룸이나 지렘은 대부분 말의 갈기나 꼬리털로 꼬아서 만든다. 일부는 가는 가죽을 4겹으로 꼬아 만들기도 한다. 지렘은 오르드 지렘(урд жирэм: 남쪽의 지렘)과 호이트 지렘(хойт жирэм: 북쪽의 지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르드 지렘은 40cm, 호이트 지렘은 50cm 정도의 길이를 지닌다. 올룸과 지렘은 말의 복부에 상처가 나 피부가 벗겨지지 않도록 끈을 매끈하고 평평하며 고르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말의 복부가 벗겨져 상처가 난다. 에멜과 지렘을 묶는 고리구멍을 에메엘린 옥소오르가(эмээлийн угсуурга)라고 부른다.

#### ⑨ 뎀스(дэвс[эн], debisü-n: 말안장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사각형 깔개)

말안장 아래에 끼워 옷이 찢어지거나 신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걸림을 에메

64) 몽골어 가운데 간자가가 들어간 표현이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서투름이나 무늬함”을 표현할 때 “간자가 모모타이(ганзага муутай: 간자가가 나쁘다)”나 “간자가 타토오(ганзага татуу: 간자가가 모자라다)”라고 말한다. ② “일치해서 참가하지 않거나 동행하지 않다”는 것을 “간자가 니엘레흐구이(ганзага нийлэхгүй: 간자가를 합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화합을 잘 하는 사람들”을 “간자가 사인 니일레흐 후무우스(ганзага сайн нийлэх хүмүүс)”라 부른다. ③ 곤궁에 처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톨고이고 간즈갈라흐(толгойгоо ганзгалах)”라고 말한다. 이외 소매상이나 행상을 “간자긴 호달다아(ганзагын худалдаа)”, 안장 끈에 묶인 것을 간자갈라아(ганзагалаа, ganjugalg-a), 간자가로 물건을 묶거나 안장에 매다는 것을 간즈갈라흐(ганзгалах, ganjugalakhu)라 표현한다.

엘린 덤스(эмээлийн дэвс)라고 부른다. 덤스는 걸럼과 같은 볼리가(булига: 소나 말의 가죽), 직물, 시르(шир: 소, 말, 사슴, 낙타의 가죽), 두꺼운 천 등으로 만든다. 덤스는 안장 쪽이 12cm~13cm, 아래의 더러어 쪽이 15cm 정도의 폭을 가진 사다리꼴 형태를 지니고 있다. 덤스는 합타스 위에 올롱족의 아래에 삽입해 고정시킨다.

⑩ 더러어(дөрөө[n], dörüge-n: 발걸이, 橙子, 鐙子)

더러어는 말을 달리거나 탈 때 다리를 두는 발걸이이며, 조일 수 있는 고리를 가진 가죽 끈으로 에메엘에 고정시킨다. 가죽 끈에 있는 고리를 사용해 더러어를 길게 혹은 짧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남송 때의 몽골종합보고서인 『흑달사략』에도 “몽골의 안장과 고삐는 가볍고 단출하여 달리기 편하다. … 발걸이[의 위쪽]이 둥글기 때문에 일어서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발걸이의] 바닥은 넓어서 신발이 쉽게 들어간다. 발걸이를 [안장과] 연결시키는 가죽은 초산을 쓰지 않고 양 기름을 발라 손으로 무두질한다. 따라서 비를 맞아도 굵어지거나 썩지 않는다. 폭은 1촌(3cm)을 조금 넘으며 길이는 4총(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말에 서서 몸을 회전시키는 것이 아주 순조롭다. … 발걸이 역시 나무를 깎아 만든다.”<sup>65)</sup>처럼 파르티안 샤프트를 구사하는 원천도구의 하나인 13세기 몽골군마의 발걸이와 그 연결 가죽을 세밀하게 관찰한 기록이 남아 있다.

⑪ 더러언니 소르(Дөрөөний сур, dörügen-u sur: 에메엘과 발걸이를 연결한 가죽 끈)

더러언니-소르는 에메엘과 발걸이를 연결한 가죽 끈이다. 이 끈은 『흑달사략』의 기록에서도 입증되듯이 13세기에는 최첨단 소재와 기술로 만들어졌다.

⑫ 하비르가(хавирга[n], khabirga-n: 발걸이의 둥근 측면 쇠)

하비르가는 갈비뼈라는 뜻으로 발걸이의 양편에 종처럼 휘어져 있는 둥근 쇠를 말한다.

⑬ 조오스(зоос[он], jogus: 발걸이의 발판 부분의 둥근 홈)

조오스는 동전이라는 뜻으로 발걸이의 발판 부분의 둥근 홈을 말한다.

⑭ 타박(таваг, tabag: 발걸이의 발판 부분의 평탄한 부분)

타박은 접시라는 뜻으로 발걸이의 발판 부분의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⑮ 걸럼(гөлөм, gölme: 안장아래에 있는 큰 가죽덮개)

더러언니-소르, 더러어로부터 말의 복부 피부가 까지는 것, 말 탄 사람의 구두로부터 말의 다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큰 형태의 볼리가(булига), 직물, 시르(шир) 등으로 만든 보호 장치를 에메엘린 걸럼(эмээлийн гөлөм)이라고 부른다. 걸럼은 길이 60cm~70cm, 위 부분이 40cm, 아래부분이 30cm 정도의 폭을 지니고 있다. 비가 올 때 걸럼을 걷어 올려 매는 끈을 에메엘린 쇼울트(эмээлийн шуулт)라고 한다.

⑯ 올롬(олом, olung: 고리가 붙어 있는 말의 복대끈)

에메엘을 고정시키는 말의 복대 끈의 하나로 끝 부분에 고리가 있는 끈을 말한다. 올롬은

65) 彭大雅·徐霆, 『黑鞑事略』: “其鞍轡, 輕簡以便馳騁…革登圓, 故足中立而不偏, 底闊, 故靴易入, 綴革登之革, 手揉而不硝, 灌以羊脂, 故受雨而不斷爛, 闊才踰一寸, 長不逮四攄, 故立馬轉身至順…革登亦剝木爲之”

말의 배를 감싸서 에메엘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렘과 결합해 에메엘을 고정시킨다.

⑰ 다로올가(даруулга, darugulga: 고정쇠)

다로올가란 “누른다”나 “고정시킨다”는 뜻을 지닌 장식품에 쓰는 말로, 올롱축을 고정시키는 둥근 장식을 에메엘린 다로올가(эмээлийн даруулга)라고 부른다.

⑱ 간자간니 다로올가(Ганзаганы даруулга: 간자가 고정쇠)

간자간니 다로올가는 간자가를 고정시키는 쇠로 만든 장식품이다. 바아바르와 같은 말로 쓰인다.

⑲ 흥흐(хонх, khongkh-a: 오르드 부우렉과 합타스 사이에 있는 둥근 빈 공간)

오르드 부우렉과 합타스 사이에 있는 둥근 빈 공간을 “에메엘의 방울”이란 뜻의 에메엘린 흥흐(эмээлийн хонх)나 “에메엘의 오금(무릎 관절 안쪽의 오목한 부분)”이란 뜻의 에메엘린 흥고(эмээлийн хонго)라고 부른다.

⑳ 아랄(арал, aral)과 헬(хэл[эн], kele-n)

아랄은 섬이란 뜻이며 헬은 허란 뜻으로, 아랄과 헬은 올롱의 고리를 이르고 있는 버클과 고리를 말한다. 이들은 지렘을 묶는 역할을 한다.

에메엘은 유목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힌 습속과 금기가 존재한다. 이것을 약간만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표현부분으로 “에메엘이 일그러지고 하자아르가 벗겨졌다(эмээл хэлтийсэн дээр хазаар мултрах)”는 “설상가상”이나 “불행만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에메엘의 배를 가지다(эмээлээ гэдсэндээ авах)”는 “질서가 사라지고, 지도자를 잃는 대혼란의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이다. “에메엘 위에서 소리를 내다(эмээл дээр ариа хайлах)”는 “말 타고 평생을 지내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다”라는 뜻이다.

다음은 습속과 금기이다. 목민들은 에메엘을 땅에 놓을 때 에메엘린 흥흐 쪽이 위로 향하게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호이드 부우렉을 위로 향하게 세워 두거나, 걸럼에 평탄하게 놓는다. 에메엘을 베고 자는 것을 엄금하는데 이를 어기면 81개의 불길한 조짐이 내린다고 말한다. 새로운 에메엘을 말에 엮을 때는 반드시 아버지나 어른을 먼저 태워 공경을 표한다. 말에 에메엘을 엮은 뒤 사람이 타지 않고 그냥 거두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어기면 말 타는 주인이 죽는 불길함이 생긴다고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사람이 탄 후에 에메엘을 거두는 습속이 있다. 땅에 둔 에메엘에 타는 것을 엄금하며, 이것을 어길 경우 불길한 조짐이 내린다고 믿는다. 말이 슈들렌 즉 2살이 되어 사람을 태울 때가 되면 새로운 에메엘을 준비한다. 목민들은 새로운 에메엘을 엮을 때 “들판에는 넘치는 말떼들, 우리에는 가득 찬 가축들, 우레에(Үрээ: 3~5살 사이의 거세마)를 끌고 가도록!”<sup>66)</sup>라고 축복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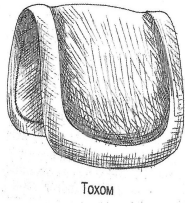
에메엘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마구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이 토흙과 다로올가 올롬이다. 따라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토흙(тохон, tokhum)은 에메엘이나 양기르착(янгирцаг, yanggirschag)<sup>67)</sup>을 말의 등에

66) Хонгор дүүрэн морьтой, Хот дүүрэн малтай, Үрээ хөтлөөд яваарай!

67) 양기르착은 양기야(янгиа, yanggiy-a)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짐을 엮는데 사용하는 안장이다. 양기르착은 땀스 등 쿠션이 없는 질이 좋지 않은 안장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엮을 때 사용하는 에스기로 만든 깔개를 말한다. 토흙은 에메엘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말의 등에 상처가 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토흙은 걸림보다 앞과 뒤쪽으로 2~4cm 정도 여유 있게 만들어 말의 등을 보호한다. 토흙의 가장자리는 붉고 푸른 색깔의 비단으로 께매 모양을 내는 경우가 많다. 토흙을 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헐섬치(хөлсөвч)라는 땅 흡수용 담요를 까는데 이를 서부지방의 목동들은 델테르(Дэлтэр)라고 부른다.



헐섬치나 토흙은 말의 몬다아(Мундаа, mundaga: 말이나 당나귀 등의 갈기가 끝나는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어깨뼈 부분) 쪽으로 썬 다음 에메엘을 엮는데, 이때 토흙과 에메엘을 뒤쪽으로 약간 미끄러진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토흙과 에메엘이 말의 털을 밀어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다. 토흙에는 모래, 흙, 식물, 눈, 얼음 등이 잘 달라붙기 때문에 항상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헐섬치 안에 눌러 붙은 다이르(Дайр: 말의 등을 따라 생긴 둥근 얼룩형태나 암갈색 고리모양의 털웅침)도 부드럽게 비벼 깨끗하게 털어주어야 한다.

다로올가 올롬(даруулга олом)은 답하르 올롬(давхар олом) 즉 이중(二重) 올롬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다로올가 올롬은 에메엘의 3번째 올롬이다. 다로올가 올롬은 에메엘을 강하게 조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거칠고 야생적인 말을 순화할 때 아주 필요하다.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이것을 사용하면 에메엘을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민들이 널리 애용하고 있다. 다로올가 올롬은 소란 올롬(суран олом: 가죽 올롬)과 데에센 올롬(дээсэн олом: 털끈 올롬)으로 분류된다. 소란 올롬은 큰 가죽을 1.5~2cm 폭으로 길게 자른 뒤 4, 6, 8가닥으로 끈 것을 말하며, 길이는 100~120cm 정도이다. 데에센 올롬은 털끈을 4, 6, 8가닥으로 끈 것을 말한다.



## 2. 재갈 부분

재갈은 기마장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말머리에 채우는 암가이(амгай), 조오자이(зуузай), 졸로오(жолоо), 홀보오르(цулбуур) 등으로 이루어진 마구(馬具)를 말한다. 재갈은 말을 부리는 도구이며, 종류는 녹트와 하자아르로 나누어진다.

### (1) 녹트(ногт, nog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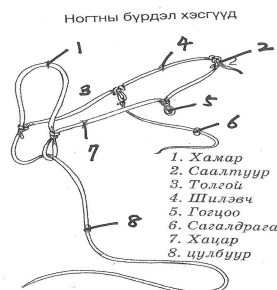
가르히(гархи: 고리)와 조오자이(зуузай: 재갈)가 없이 말머리에 설치하는 끈을 녹트라고 부른다. 녹트는 말의 머리에 최초로 끈을 사용해 묶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말에게 순화 교육 시킬 때, 혹은 단순히 끌고 가거나 방목할 때에도 사용한다.

녹트는 대상동물 즉 오나가(Унага: 1살 미만의 망아지), 보트고(Ботго: 1살 미만의 낙타새끼), 토갈(Тугал: 1살 미만의 송아지), 바로오(Бяруу: 1살 된 송아지), 나이든 말(нас гүйцсэн морь)에 따라 규격과 명칭이 정해진다. 녹트의 구조는 동물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줄의 길이만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녹트의 길이는 4m 정도이다.

녹트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소란 녹트(суран ногт: 가죽제 녹트), 올손 녹트(олсон ногт: 대마 녹트), 할가산 녹트(хялгасан ногт: 말의 갈기나 꼬리털로 만든 녹트)로 나누어

진다. 할가산 녹트는 어린 망아지나 낙타새끼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사용할 때 머리 부분이 상처입지 않도록 녹트의 하마르(хамар: 코)와 толгой(толгой: 머리) 부분을 부드러운 직물로 감싸준다. 대마로 만든 녹트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녹트는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8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마르(хамар, khamar: 코)

하마르는 말의 코와 눈 사이에 걸리는 끈을 말한다.

② 사알토오르(саалтуур, sagaltuur: 고리를 거는 구멍)

실렙치의 끝부분을 조금 두껍게 만든 뒤 그곳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는데 이것을 사알토오르라고 말한다. 사알토오르는 실렙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толгой(толгой, tolugai: 머리)

толгой는 하마르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끈으로 실렙치를 만나기 전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④ 실렙치(шилэвч, silibchi: 목 끈)

실렙치는 실(шил: 목)이라고도 하는데 말의 목덜미를 매는 끈을 말한다. 실렙치는 사알토오르를 통해 길이를 길게 혹은 짧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말머리의 방향 회전을 자유롭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⑤ 곡초오(гогцоо, gogchuga: 턱 고리)

곡초오는 세짐(сэжим, sejim)이라고도 하는데 사갈다르가를 집어넣는 구멍이다.

⑥ 사갈드라га(сагалдрага, sagaldurg-a: 턱 고정끈)

사갈드라가는 턱을 고정하는 끈이다. 실렙치와 사갈드라가의 길이는 2 터어(төө)<sup>68)</sup>인 36cm 정도가 적당하다.

⑦ 하차르(хацар, khachar: 뺨)

하차르는 하마르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간 끈으로 곡초오를 만나기 전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⑧ 출보오르(цулбуур, chilbugur: 고삐)

말머리의 오른쪽에 있는 하마르의 매듭에서부터 길게 이어진 끈을 출보오르라고 말하며, 길

68) 터어(төө, töge)는 몽골전통의 길이단위로서, 손을 벌려서 엄지손가락 끝에서 검지(집게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대략 18cm에 해당한다. 참고로 몽골의 전통적인 길이단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호로오(xypyu[н], khurugu-n)는 손가락 끝의 폭으로 약 1cm에 해당한다. 서엄(сөөм, sögüm)은 집게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에 이르는 거리를 말하는데 대략 16cm에 해당한다. 토호이(toxой, tokhui)는 팔꿈치의 길이로 32cm, 델렘(дэлэм, delim)은 한 팔을 펼친 길이로 1m, 알드(алд, alda)는 양팔을 좌우 수평으로 벌렸을 경우 중지에서 중지까지의 길이로 160~176cm, 알함(анхам, alkhum)의 한 걸음(보폭)의 길이로 71cm에 해당한다.



이는 2m~2.5m, 폭은 2~2.5cm의 정도이다. 출보오르는 하마랍치(хамравч, khamarabchi: 코걸이 끈)를 통해 길이를 조절한다.

녹트 역시 유목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힌 습속과 금기가 존재하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말을 무리에 집어넣을 때 말 뒤에서 녹트로 말을 때리며 쫓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기면 길을 갈 때 타고 갈 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말을 사람에게 줄 때 나 팔 때 녹트나 하자아르를 함께 주는 것을 엄금한다. 이럴 경우 가족에 내리는 복도 그것을 따라간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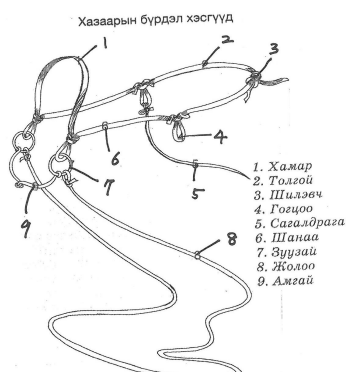
## (2) 하자아르(хазаар, khajagar)

암가이(амгай), 조오자이(зуузай), 졸로오(жолоо), 출보오르(цулбуур) 등을 갖추고 말 머리에 설치하는 끈을 하자아르라고 부른다. 하자아르는 말의 걸음 거리를 멈추고 달리게 하는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녹트를 한 상태로 하자아르를 다시 겹쳐 채우는 일도 있는데, 특히 몽골 서부지역이 그러하다. 서부지역의 몽골인들은 은제 하자아르를 녹트 위에 이중으로 씌워 나담, 연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종의 과시에 해당한다.

하자아르는 홀 가족이나 이중 가족으로 만드는데, 홀 가족으로 만든 것을 단-소란 하자아르(дан суран хазаар), 이중 가족으로 만든 것을 답하르-소란 하자아르(давхар суран хазаар)라고 부른다. 단-소란 하자아르는 순한 말, 답하르-소란 하자아르는 사나운 말에 적당하다. 또 금, 은, 옥, 구리, 청동 등으로 장식을 만들어 붙인 것을 토브로오타이 하자아르(товруутай хазаар)라고 부른다.

몽골인들은 장식에 주로 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브로오타이 멩겐 하자아르(товруутай мөнгөн хазаар)라고 부른다. 토브로오(товруу, toburuu)는 허어멜(хөөмөл)이나 시이멜(сийлмэл, seyilumel: 새김) 기법, 은사(銀絲)로 감싸는 기법, 은으로 테를 두르는 기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든다. 몽골인들이 에메엘의 바아바르, 다로올가, 더러어 및 하자아르 등 마구 전반에 은으로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은이 말의 양병(ям өвчин: 동물의 코에 종기가 나는 병)을 예방하는 치병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자아르는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9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하마르(хамар, khamar: 코)

말의 코와 눈 사이에 있는 하자아르의 2개 조오자이를 연결하는 가족 끈을 하자아린 하마르(хазаарын хамар)라고 부른다. 이 끈의 길이가 길면 사갈드라가 뒤에 놓이게 되어, 졸로오를 당길 때 하자아린 실(хазаарын шил) 부분에 공간이 생긴다. 그러나 짧게 하면 말의 턱 주변을 마찰하여 병이 난다. 따라서 이 끈의 길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톨고이(толгой, tolugai: 머리)

말의 목 부분에 거는 끈 부분을 하자아린 톨고이(хазаарын толгой)라고 부른다. 말의 이마 부분에 늘어뜨린 끈을 하자아르의 암가입치(хазаарын амгайвч)라고 하는데 이 끈에는

하자린 톨리(хазаарын толь)라는 작은 메달을 매달아 장식한다. 이것은 경주마를 아름답게 꾸밀 때 사용한다. 이를 하자아린 마그나임치(хазаарын магнайвч)라고도 부르는데, 마그나임치(магнайвч, mangnayibchi)는 말의 이마를 꾸미는 장식품을 말한다.

③ 실렘치(шилэвч, silibchi: 목 끈)

실렘치는 실(шил: 목) 혹은 타르히(тархи, тарихи, tariki: 머리, 뇌)이라고도 하는데 말의 목덜미를 매는 끈을 말한다. 실렘치는 사알토오르를 통해 길이를 길게 혹은 짧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말머리의 방향 회전을 자유롭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말의 목덜미에서 하자아린 하차르에 이르는 부분의 끈을 하자아린 실(хазаарын шил)이라 부른다.

④ 곡초오(гогцоо, gogchuga: 턱 고리)

곡초오는 세짐(сэжим, sejim)이라고도 하는데 사갈드라가를 집어넣는 구멍이다. 그래서 사갈드라긴 곡초오(сагалдрагын гогцоо)라고 부르기도 한다.

⑤ 사갈드라가(сагалдрага, sagaldurg-a: 턱 고정 끈)

사갈드라가는 턱을 고정하는 끈이다. 사갈드라가는 하자아르가 말의 머리에서 벗겨지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⑥ 사나아(шанаа[н], sinaga: 광대뼈의 윗부분, 눈꼬리 주변)

조오자이와 연결된 하마르의 끈 매듭부분에서 사갈드라가에 이르는 부분의 끈을 사나아 혹은 하자아린 하차르(хазаарын хацар: 하자아르의 볼, 뺨)라고 부른다.

⑦ 조오자이(зуузай, juujai: 재갈을 물리는 쇠)

조자이는 재갈을 물리는 쇠로 둥근 고리, 썰기, 활 등의 형태로 만든다. 썰기와 활 형태의 조오자이는 영동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말에 주로 사용되지만, 오르가치(уургач)가 타는 말,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에도 사용된다. 둥근 고리 형태의 조오자이는 모든 말에 사용된다. 조오자이와 톨고이의 매듭 사이의 끈을 샤가이(шагай, sigai: 복사뺨)라고도 부른다.

⑧ 졸로오(жолоо[н], jiluga-n: 고삐)

2개의 조오자이에 연결한 두꺼운 가죽끈을 졸로오(жолоо)라고 부른다. 졸로오는 말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몽골에서 운전사를 졸로오치(жолооч)라는 하는 것도 여기서 유래했으며,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조라치(照羅赤)<sup>69)</sup>도 이에 관련된 말이다. 이것을 2알드(алд)의 길이 즉 320~352cm 정도의 잘 가공한 부드럽고 가는 다란 가죽으로 만든다. 졸로오의 가죽을 조오자이에 토오노 결박법(тоноо туших арга)으로 풀리지 않게 묶는다. 몽골인들은 말을 기동에 땀 때 항상 한타이라흐(хантайрах) 방식을 취하는데, 한타이라흐 방식이란 졸로오의 한 줄을 에메엘의 앞쪽이나 뒤쪽 부우렉에 매

69) 朴趾源(1737~1805), 『熱河日記』 「口外異聞」 照羅赤條: “우리나라에서 삼청(三廳)의 하인을 조라치(照羅赤)라 부르는 것은 고려 때의 관습을 계승한 것이다. 고려 때는 위구르어를 많이 배웠는데, 조라치도 반드시 몽골어일 것이다(我國內三廳下隸, 號照羅赤, 此當因襲高麗之舊, 麗世多習畏兀語, 照羅赤者, 必蒙語也)”. 이곳에서의 위구르어[畏兀語]는 위구르 문자[畏兀文]를 가리킨다.

어두는 것을 말한다. 말을 끌고 가거나 땀 때 조오자이에 매어 사용하는 털끈이나 가죽제의 긴 끈을 촛보오르(цубуур)라고 부른다. 촛보오르가 길면 말을 결박하기가 좋은데, 촛보오르를 사용해 말의 앞 두발을 결박하는 것을 모리 토시흐(морь туших)라고 부른다.

#### ⑨ 암가이(амгай, amagai: 재갈)

암가이(амгай)는 첼제의 둥근 고리형 재갈인 2개의 조오자이(зуузай)를 연결하는 끈이다. 암가이는 재갈로서 잡아당기면 활처럼 휘어 말의 입을 압박한다. 몽골어로 “재갈을 물리다”를 “암가이 조올가흐(амгай зуулгах)”, “재갈을 빼다”를 “암가이 가르가흐(амгай гаргах 재갈을 빼다)라고 하는데 이는 억압과 해방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하자아르 역시 그것에 얽힌 습속과 금기가 존재하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자아르를 채운 말을 어떠한 이유로 게르의 문에 데리고 오는 경우, 촛보오르를 가지고 게르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 희생으로 바친 말의 촛보오르는 집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말을 이끌 때 졸로오, 촛보오르를 어깨 위에 놓거나 졸로오를 두 손으로 잡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어기면 말을 탈 때 떨어진다고 한다. 하자아르를 아래로 향하게 가지고 가거나 매다는 것을 금한다. 하자아르를 남의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 게르 위에 두는 것, 몸에 두르는 것을 금한다. 또 하자아르를 가지고 집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문지방이나 하타치(хатавч, khatabchi: 문과 벽의 접합부)를 건드리거나 치는 것을 금한다. 이러면 말의 머리가 철거덕(빠걱)거린다고 한다.

### 3. 기타 부분

에메엘과 재갈 이외에 채찍이나 토샤아(тушаа)와 처더르(чөдөр), 호소오르(хусуур) 등도 기마장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 오오르가(уурга)와 보고일(бугуйл), 차흐(Цах), 고대 몽골말의 가슴걸이와 밀치까지 더해 모두 여섯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 (1) 타쇼오르(ташуур, tasig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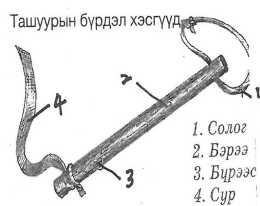
타쇼오르는 말을 탈 때나 말무리를 재촉하여 빠르게 달리게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고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급 인사들이나 여자들은 타쇼오르를 채찍의 기능보다는 장식품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타쇼오르는 크기(길이)에 따라 이흐-가르(их гар: 큰손), 돈드-가르(дунд гар: 중간손), 바가-가르(бага гар: 작은 손) 등 3가지로 나뉘어진다. 이흐-가르(их гарын ташуур)는 길이가 60~90cm 정도로 남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흐-가르는 장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이 경우 나무도 백단향 등 고급재료를 사용하여 만들며 몸체에 다양한 장식을 붙인다.

돈드-가르(дунд гарын ташуур)의 길이는 40~50cm, 바가-가르(бага гарын ташуур)의 길이는 20~25cm 정도이다. 타쇼오르는 몸체를 구성하는 나무가 길어질 때마다 그것에 매달린 채찍 끈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흐-가르의 경우 채찍 끈의 길이가 20~30cm, 돈드-가르는 30~40cm, 바가-가르는 40~50cm이다. 그러나 어떤 타쇼오르도 손잡이 부분에 달린 둥근 가죽 끈인 솔로그(Солор)의 길이는 20cm보다 길지 않다. 바가-가르는 대부분 어린아이

들, 돈드-가르는 여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타쇼오르는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겔드렉(сэгэлдрэг, segeldürge: 채찍 끈) 혹은 솔로그(солог, solug: 채찍 끈)

세겔드렉이나 솔로그는 타쇼오르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 부분에 달린 둥근 가죽 끈을 말한다. 타쇼오르인 세겔드렉(ташуурын сэгэлдрэг)이나 타쇼오르인 솔로그(ташуурын солог)라고 부른다.

② 베레에(бэрээ, beriy-e: 곤장) 혹은 이흐 비에(их бие, yeke beye: 큰 몸)

타쇼오르의 몸체를 형성하는 주요부분이 곤장이란 뜻을 지닌 베레에이다. 베레에는 그 기능 때문에 “큰 몸”이라는 뜻의 “이흐 비에”라고도 불린다.

③ 부레에스(бүрээс[өн], bürigesün: 덮개)

부레에스는 소르를 묶는 타쇼오르의 아랫부분으로 “타쇼오르의 머리 덮개”라는 뜻을 지닌 타쇼오르인 톨고인 부우레스(ташуурын толгойн бүрээс)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소르(сур, sur: 가죽)

소르는 토오하이(туухай, tuukhai: 저울추)에 매달린 채찍으로 타쇼오르인 소르(ташуурын сур)라고 부른다. 소르를 부레에스에 묶는 부분을 소르니 토오하이(сурны туухай, sur-un tuukhai)라고 부른다.

타쇼오르 역시 그것에 얹힌 습속과 금기가 존재하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인들은 타쇼오르로 말머리를 때리거나 두드리는 것을 금기시한다. 이는 술드(Сүлд)에 제의를 올릴 때 기(旗)를 보지 않고 땅만 보는 것과 같다고 비난받는다.<sup>70)</sup> 이러한 비난은 13세기의 몽골종합리포트인 『흑달사략』에 “[몽골의 금기] 말의 머리를 채찍으로 때린 자, 음란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sup>71)</sup>는 기록으로 미루어 매우 엄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3세기 서양의 몽골종합리포트인 카르피니(John of Plano Carpini, 1180~1252)의 『몽골여행기(History of the Mongols)』에는 “또 그들은 말을 몰 때 박차를 사용하지 않고 채찍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찍에 화살을 접촉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 고삐로 말을 때리는 행위 … 등도 [죄악으로 간주한다]”<sup>72)</sup>처럼 타쇼오르로 화살촉을 건드리는 것을 금기시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이 습속은 말채찍의 길이가 짧아졌고 또 화살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다. 그러나 현재도 타쇼오르로 남의 물건을 건드리거나 사람을 가리키는 행위 혹은 채찍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모두 금기로 되어 있다. 말채찍(타쇼오르)을 가지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인을 멸시하거나 혹은 주인을 잡

70) 몽골의 술드(Сүлд, sülde)祭에 대해서는 박원길, 「토크(Tug)祭」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서울, 민속원, 2001, pp.243-250를 참조.

71) 彭大雅·徐霆, 『黑鞑事略』: “其國禁…箠馬之面目者, 相與淫奔者, 誅其身”

72) 박원길, 「고대 몽골의 금기에 대하여 - A.D.13C 동서양의 문헌을 중심으로 -」 『민속학연구』 13, 2003, p.54

겠다는 적의의 표시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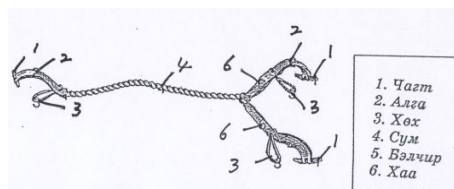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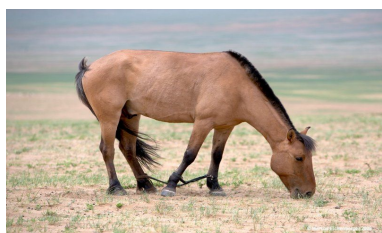
타쇼오르를 가지고 노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어기면 말이 달아나거나 말을 탈 때 말 위에서 떨어지는 불행을 겪는다고 한다. 몽골격언에는 “서둘러 가려면 [앞아서] 쉬지 말고, 피곤해도 [말 위에서] 타쇼오르를 [에메엘에] 꺾면서 가지 말라”<sup>73)</sup>는 말이 있다.

## (2) 토샤아(тушаа, tusiya)와 처더르(чөдөр, chidör)

녹트, 하자아르, 에메엘, 타쇼오르가 말을 탈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토샤아와 처더르는 탄 말을 쉬게 할 때 사용하는 마구이다. 또 에메엘이나 짐을 실을 때, 말을 주변 가까이 놓을 때, 거세할 때, 거친 말을 순화시킬 때도 사용한다.

토샤아는 말의 앞부분 두 다리를 묶는 끈이고, 처더르는 말의 앞다리 2개와 뒷다리 1개를 묶는 끈이다. 토샤아와 처더르는 말, 소, 낙타의 가죽을 가공해 만든 폭 2.5~3cm의 가죽 끈으로 만든다. 토샤아는 터머르 토샤아(төмөр тушаа)라는 이름이 존재하듯이 13세기부터 철로 만든 것도 존재하고 있다. 철제 토샤아는 일반적인 말에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명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가죽을 이중으로 꼬아 만든 토샤아는 단단하고 오래 쓸 수 있다.

처더르는 몽골말을 사육했던 제주도에서 지달이란 명칭으로 남아 있을 만큼 가장 널리 사용된다. 처더르는 가죽이나 말의 갈기나 꼬리털로 훌겹이나 이중, 삼중으로 꼬아 만든다. 처더르는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착트(чагт[ан], chigta-n: 걸림쇠)

처더린 착트(чөдрийн чагт)는 썰기와 같은 형태로 구멍에 끼우는 걸림쇠와 같은 것으로 뿔이나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착트는 가운데가 통통하게 나왔으며 양쪽으로는 가늘다. 또 몸체에 알가에 끼어 넣기 위한 호빌(ховил: 흠)이 있다. 이 호빌을 통해 알가(алга)의 가죽에 강하게 부착된다. 착트는 말의 다리에 닿지 않게 신중히 만들어야 한다. 만약 규격보다 길면 말의 다리에 상처를 입힌다.

### ② 알가(алга, alaga: 손바닥)

처더린 알가(чөдрийн алга)는 바로온 알가(баруун алга: 오른 손바닥), 주운 알가(зүүн алга: 왼손 바닥), 호이드 알가(Хойд алга: 북쪽 손바닥)로 나뉘어진다. 처더르와 토샤아의 알가 부분은 말의 다리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끈이 아닌 평평한 가죽으로 만든

73) Яаравч явган бүү суу, Ядравч ташуураа бүү тул.

다.

③ 허흐(хөх, kökü: 유방)

처더린 허흐(чөдрийн хөх)는 착트를 집어넣는 구멍이다. 구멍의 모양이 젓가슴처럼 생겼기 때문에 허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허흐 구멍은 매우 세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 규격이 잘 맞지 않으면 처더르가 다리에서 벗겨져 말이 달아난다.

④ 솜(сум, sumun: 화살)

처더린 솜(чөдрийн сум)은 “처더르의 화살”이란 뜻으로, 이흐 비에(их бие: 큰 몸)라고도 부른다. 처더르를 만들 때 솜의 길이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솜이 길면 왼쪽 뒷다리가 솜에 걸려 넘어져 불구가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을 유목민들은 “처더르가 말을 차다”는 뜻의 “처더르 어식러흐(чөдөр өшиглэх)”라고 부른다. 그러나 짧으면 멀리 가서 풀을 먹을 수 없다. 솜은 가죽을 꼬아 만드는데, 꼬임정도에 따라 단 솜(Дан сум: 홑 솜), 호임손 솜(Хоймсон сум: 이중 꼬임 솜), 고람산 솜(Гурамсан сум: 3중 꼬임 솜), 솔즈멜 솜(Сүлжмэл сум: 편물기법으로 짠 솜)으로 분류한다. 2개의 가죽을 꼬아 만든 호임손 솜은 꼬임 면이 고르며, 세계 당겨 꼴 경우 그 성능이 고람산 솜에 뒤지지 않는다.

⑤ 벨치르(бэлчир, belchir: 교차점, 갈래)

벨치르는 앞다리에 채우는 두 개의 알가가 하아를 통해 솜과 만나는 부분으로 일종의 분기점에 해당한다.

⑥ 하아(xaa, kha : 짐승의 앞다리, 가슴부분)

하아는 앞다리에 채우는 두 개의 알가와 솜 사이에 위치한 끈이다. 앞다리의 위치한 두 개의 하아에서 서남쪽 면의 하아가 동쪽 면보다 약간 길다. 만약 동일하게 만들면 말의 다리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며, 만약 이 상태에서 말이 앞으로 움직인다면 그대로 쓰러져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처더르 역시 그것에 얽힌 습속과 금기가 존재하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더르를 채울 때 말의 왼쪽에서부터 채우는 것을 금한다. 장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말은 왼쪽에서부터 처더르를 채우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죽음을 부르는 죄악으로 간주한다. 기둥에 묶인 말에 처더르를 채우는 것을 금한다. 반드시 끈을 풀고 출보오르를 잡은 다음 처더르를 묶어야 한다.

처더르를 두르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만약 우연찮게 처더르를 두르고 남의 집에 들어갈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그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처더르를 압수해 풀기 어려운 매듭을 만들어 돌려준다. 처더르의 주인이 그 매듭을 풀면 처더르를 가져갈 수 있지만, 풀지 못하면 그 집에 두고 가야 한다. 이 관습을 아직도 철저히 준수된다.

### (3) 호소오르(хусуур, khusugur)

말의 땀을 닦아 줄 목적으로 뿔이나 대나무로 만든 칼과 같은 마구를 호소오르라고 한다. 호소오르는 대나무나 펠리컨의 주둥이 뼈, 질 좋은 나무 등으로 만든다. 길이는 2 터어



(Төө) 즉 36cm 정도이며 손잡이 부분은 16cm 정도로 약간 파여져 있다. 호소오르는 지역마다 약간씩 특성의 차이가 있지만 그 기능은 모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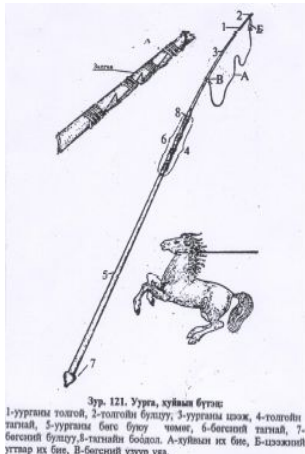
말이 질주를 하면 임파선이 확대되어 땀이 흘러내린다. 땀이 흐르면 털이나 가죽에 흠먼지가 달라붙고 그 위에 세균들이 번식할 조건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질주 후 반드시 땀을 닦아 주어야 하는데, 털의 방향을 따라 깎아내듯 땀을 닦아낸다. 먼저 말의 입 주위, 머리 앞부분의 연골을 거쳐 갈기가 끝나는 몬다아(мундаа)에 이른 뒤, 등, 뒷다리의 엉덩이에서 아킬레스건 쪽, 가슴에서 뒤흘 부분 순으로 땀을 제거한다.

#### (4) 오오르가(уурга, urg-a)와 보고일(бугуйл, buguyil)

말을 잡는 목적을 지닌 긴 나무 끝에 달린 올가미를 오오르가, 단순히 끈으로만 이루어진 올가미를 보고일이라 부른다. 몽골 풍경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로 긴 장대를 든 목동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오오르가로 말을 잡는 목동인 오오르가치(уургач)이다. 또 그가 탄 말을 오오르가치 모리(уургач морь)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오오르가로 말을 잡는 목동을 태우고 달리는 것에 익숙한 말이다. 훌륭한 오르가친의 조건은 좋은 말과 좋은 오오르가이다. 오오르가치 모리는 빠르고 영리하며 다른 말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보고일은 말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뜻하는데, 보고일치(бугуйлч)는 올가미로 말을 잘 잡는 명인이며 그 행위를 보고일다흐(бугуйлдах, buguyildakh)라고 부른다. 보고일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8~10알드(алд)에 해당하는 12m 80cm~16m이며, 가장 긴 것이 12알드(19m 20cm)이다.

오오르가는 만드는 나무의 재질에 따라 호산 오오르가(хусан уурга: 자작나무 오오르가), 보르가산 오오르가(бургасан уурга: 버드나무 오오르가)로 구분된다. 몽골인들은 대부분 오르가의 체즈(цээж: 가슴)를 쪽 뿔은 버드나무로 이흐 비에(их бие:몸체)를 자작나무로 만든다. 오오르가의 길이는 6~8m, 지름은 3~5cm이며 맨 위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가늘어진다.



오오르가는 얼핏 보면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다음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세부적으로 9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용도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톨고이(толгой, tolugai: 머리)

오오르가의 상단 끝부분을 오오르가니 톨고이(уурганы толгой)라고 부른다.

##### ② 볼초오(булцуу, bulchagu: 묶음 턱)

오오르가의 상단 끝부분에 있는 묶음 턱을 볼초오라고 말한다.

##### ③ 체에즈(цээж, chegeji: 가슴)

박스 위쪽에 위치한, 박스와 다른 나무로 묶어져 연결된 비교적 가느다란 나무부분을 오오

르가닌 체에즈(уурганы цээж)라고 부른다. 체에즈는 가느다란 버드나무를 사용한다.

④⑥ 타그나이(тагнай, tangnai: 입천장)

벽스와 체에즈를 끈으로 이어주는 부분을 “머리의 입천장”이란 뜻의 “толгойн тагнай(толгойн тагнай)”, 혹은 “벽스의 입천장”이라는 뜻의 “бөгсний тагнай(бөгсний тагнай)”라고 부른다,

⑤ 벽스(бөгс, bögsen: 엉덩이)

오오르가의 아래 부분 몸체를 이루는 부분을 오오르가니 벽스(уурганы бөгс)라고 부른다. 벽스는 줄자강 시네스(зулзаган шинэс: 낙엽송의 일종)나 자작나무 만든다. 체에즈와 벽스를 버드나무와 자작나무의 결합으로 만들면 잡을 때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벽스는 처먹(чөмөг, chimüge: 골수)이라고도 부른다.

⑦ 벽신 볼초오(бөгсний булцуу: 벽스의 묶음 턱)

오오르가의 맨 아래부분을 벽신 볼초오라고 부른다.

⑧ 타그나인 보오돌(тагнайн боодол, tangnai-yin bogudal: 연결 끈)

벽스와 체즈를 구성하는 나무를 타그나이에서 강고하게 서로 묶어 연결시켜주는 끈을 말한다.

⑨ 호이브(хуйв, khuйibi: 올가미)

오오르가의 상단 끝에 위치한 올가미를 오오르가니 호이브(уурганы хуйв)라고 부른다. 호이브는 세부적으로 (A) 호이빈 이흐 비에(хуйвын их бие: 올가미 본줄), (Б) 체에즈니 옥트바르 이흐 비에(цээжний угтвар их бие: 상단 고리를 매는 끈으로 길이 18cm 정도), (B) 벽스니 우주우르 오야(бөгсний үзүүр уяа: 하단 고리를 매는 끈으로 길이 18cm 정도)로 구성된다. 호이브는 영양의 수컷이나 고라니의 목 부분 가죽, 소가죽, 염소가죽 등을 잘 무두질하여 3겹으로 꼬아 만들며, 길이는 2 알드(алд) 정도인 3m 20cm 전후이다.

오오르가는 말을 잡을 때 쓰는 가장 편리한 마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한다. 특히 거친 야만스러운 말을 오르가로 잡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널리 사용된다. 몽골인들은 말을 잡을 때 노래는 물론 소리도 잘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말때를 안정시키려고 힘쓴다. 말때는 다양한 성격을 특성을 지닌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포획 방식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잘 도망치거나 다가오지 않는 말인 오로오모리(ороо морь)는 오오르가로 잡을 때 곧잘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질주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몽골격언에 “오로오 모리는 속여서 잡는다. 수많은 거칠고 성격이 나쁜 말은 지혜로 잡는다.”<sup>74)</sup>, “말을 잡는 것은 오오르가의 힘, 쾌적한 삶은 지혜의 힘”<sup>75)</sup>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다양한 포획방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능숙한 오오르가치는 말을 부드럽게 한쪽 구석으로 모은 다음, 곧바로 말때 속으로 차르듯 들어가서 오오르가를 채운다. 이것을 “덤벼들어가 오오르가를 채운다”는 뜻의 “손강 오

74) Ороо морийг аргаар барина, Олон ааштыг ухаанаар зална.

75) уургаар морь барих улаан гарын хүч, уран сайхан явах ухаан билгийн хүч.



르즈 오오르갈라흐(Шунган орж уургалах)”나 “소르고울즈 오오르갈라흐(шургуулж уурга  
лах: 파고 들어가 오오르가를 채우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잡은 말의 머리에 호이브를 거  
는 것을 톨고이 올로흐(толгой олох)라고 말한다.

목동은 말에 오오르가를 걸자마자 잡아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잡아당기는 것을 “말  
을 앓히다”는 뜻의 “모리 소올가흐(морь суулгах)”라고 부르는데, 앓히는 방식에는 특제에  
소올가흐(түгжээ суулгах: 빗장으로 앓히다), 다고울즈 소올가흐(дагуулж суулгах: 따라  
가 눌러 앓히다), 간자갈즈 소올가흐(ганзагалж суулгах: 간자가로 앓히다) 등이 있다.

특제에 소올가흐는 모리 소올가흐와 동의어로 쓸 만큼 널리 쓰이는 방식인데, 말에 오오  
르가를 씌우자마자 단호하게 당겨 말의 뒷다리를 구부린 뒤 앞다리 위에 추려 앓히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을 쓰기 어려운 말들은 오오르가를 채운 뒤 따라가다 말이 회전할 때 강하  
게 당겨 제압하는 다고울즈 타타흐(дагуулж татах: 따라가 당기다)” 방식을 사용한다. 말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변두리에서 맴도는 특성을 지닌 말을 추격해 오오르가치 모리(уур  
гач морь)의 힘으로 제압한 뒤 오오르가를 채우는 것을 “허어즈 오오르갈라흐(хөөж уурга  
лах: 추격해 잡다)”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목동은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오르가에도 그것에 얹힌 습속과 금기가 존재하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동  
들은 오오르가를 “내 몸에 넘치는 기를 주고, 내 가축 떼에게 복을 주는 달라가(даллага<sup>76)</sup>)”라고 존중한다. 오오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대부분은 게르 오른쪽의 부슬루우르(бүс  
лүүр, büselegür: 몽골 게르를 묶는 가축의 털로 만든 끈) 안에 끼워둔다. 그러나 몸체와  
호이브를 분리하여 몸체는 밖에 누여두고 호이브는 오니(унь, uni)<sup>77)</sup>에 끼워 보관하는 경위  
도 있다. 땅에 둔 오오르가의 위로 넘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게르를 나갈  
때 오오르가의 벽스 쪽으로 걸어 나가거나, 오오르가의 그림자를 밟는 것을 금한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오오르가를 만드는 것을 보면, “손에 잡은 오오르가는 길어지며,  
타는 말은 명마가 되라”<sup>78)</sup>고 말하며, 오오르가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 말을 오오르가나 보  
고일로 잡을 때 “올가미는 명중하고, 자세는 튼튼히, 사람의 힘은 뛰어나게, 준마의 힘은 부  
족하게 해 주소서!”<sup>79)</sup>라고 칭송한다. 오오르가는 말을 잡을 때만 사용한다. 양과 염소와 같  
은 작은 가축인 복말(бог мал)에는 오오르가나 보고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어기면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복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76) Эр биеийн минь хийморь, Энх сүргийн минь даллага. 달라가(dallaga, даллага)는 화살을 사용해  
복을 부르는 의식(dallaga abakhu yosun, даллага авах ёс)이다. 유목사회에서 음력 8월은 가장 풍요로운  
때이다. 바로 이때 몽골인들은 “복을 부른다”는 뜻을 지닌 달라가 의식을 거행한다. 이 의식은 사만의 유풍  
으로 오래된 화살일수록 효험이 있다. 화살의 상단에 하박을 비롯한 각색의 끈을 매단다. 의식을 행하는 자  
는 화살을 손에 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모여라”라는 뜻을 지닌 “호라이(khurai, хурай)! 호라  
이!”를 끊임없이 외치는데, 이 때 소유의 가축들이 모두 몰려든다. 이 달라가 의식은 물자를 풍부하게 내려  
준 하늘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가족과 씨족은 물론 온 나라가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이 의식에 대해서는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서울, 민속원, 1996, pp.137-138 ; Х.Нямбу  
у, 『даллага авах хишиг хүртээх』 『Хүндлэхийн дээд хөх монголын төрийн ёсон』 УБ, 1992를 참  
조.

77) 오니(uni, унь)는 토오노를 떠 바치고 있는 우산살 형태의 나무들이다. 토오노(togunu, тооно)는 게르 천장  
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오니를 고정하는 원형의 목제 구조물이다. 일반적인 유목민들의 게르는 81개의 오니  
로 구성되어 있다. 게르의 크기는 하나(хана[н], khan-a)의 숫자로 결정되는데, 하나는 게르의 몸통이자 벽  
을 구성하는 구조물로 주로 자작나무, 버드나무 등으로 만든다. 몽골게르의 구조와 거기에 담긴 철학사상에  
대해서는 백승정·박원길, 『몽골의 게르(Ger)에 나타난 북방문화원형 디자인 연구』 『몽골학』 31, 2011을 참  
조.

78) Барьсан уурга нь урт, унасан хүлэг нь хурдан болог

79) Оноо нь мэргэн суудал нь бат байг, хүний хүч давуу хүлгийн хүч дутуу байг.

## (5) 차흐(цах, chakhu)

몽골인들은 말의 머리를 “몰로르 에르데네(молор эрдэнэ: 수정보석)”라고 간주하면서 말에 사용되는 마구를 존중의 뜻으로 특별한 고리에 거는 습속이 있다. 차흐는 “걸개”라는 뜻으로 주로 끈으로 이루어진 마구를 걸어서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차흐에 하자아르, 녹트를 걸 때 하마르 부분을 호이모르(хоймор, khoyimur) 쪽을 향하게 한다. 처더르와 토샤아를 걸 때도 알가가 호이모르 쪽을 향하도록 한다. 호이모리는 게르의 북쪽에 위치한 집 주인이 앉는 장소를 말한다. 방향으로 보면 북쪽이다. 일반적으로 몽골인들은 걸개에 매다는 것은 모두 호이모르(북쪽)을 향하게 걸어두는 습속이 있다. 몽골인들은 7개의 가지를 지닌 걸개를 가장 좋은 상징으로 보는데 이는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좌우하는 북두칠성이 가축의 마구를 보호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 (6) 가슴걸이(хөмөлдөрөг)와 밀치(хударга)

현재 몽골말에는 가슴걸이와 밀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기의 몽골인들이 그것을 사용했다는 기록과 증거는 많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몽골비사』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테무진은 숲 속에서 3일을 보낸 뒤 [이제] “나가자”고 [생각하여] 말을 끌고 나올 때에 에메엘이 말에서 벗겨져 떨어졌다. 돌아다보니 가슴걸이가 매어져 있고 올랑(복대)도 매어져 있는데 [단지] 에메엘만이 벗겨져 떨어져 있었다. “올랑은 멀쩡하고 가슴걸이[도 매어져 있는데] 다시 어떻게 [에메엘만] 벗겨져 떨어진 것일까. 하늘이 [나에게 나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한 테무진은 원래의 곳으로] 되돌아갔다.<sup>80)</sup>

둘째는 그림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다. 가슴걸이와 밀치는 1274년 문영(文永)의 역(役)과 1281년 홍안(弘安)의 역(役)에 참가하여 몽골군과 전투를 벌였던 비후국(肥後國)의 무사인 죽기계장(竹崎季長)이 그린 몽골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나 페르시아 및 유럽에서 전승되는 13세기 몽골군을 묘사한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현대몽골어에 남아 있는 고대어의 흔적들이다. 현대 몽골어에는 가슴걸이를 나타내는 허멀드러그(хөмөлдөрөг, kömüldürge), 밀치를 나타내는 호드라가(хударга, khudarga)와 함께, 말의 재갈과 밀치를 뜻하는 “하자아르 호드라가(хазаар худрага)”라는 연어(連語), “사람이 가버린 후에 그가 없는 것을 기회로 어떤 일을 꾸미다”라는 뜻의 “호드라가아르 소오흐(худрагаар суух)”라는 단어도 존재하고 있다.

80) 『몽골비사』 제80절 : Temüjin shigui dotorā gurban khonoju garchu ke'en mori-yan köttöljü ayisukhui-dur morin-acha eme'el inü mültürejü khochorchu'u. khariju üje'esü eme'el kömüldürgelegse'er olanglasa'ar mültürejü khochorchu'u. olang chi boltugai, kömüldürge basa ker mültüreki büle'e, tenggeri Idakhan akhu-yu ke'ejü khariju.

#### IV. 맺는 말

이상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를 『원사』, 『몽달비록』, 『흑달사략』 등의 문헌기록과 에메엘과 하자아르 등 현대몽골의 기마장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결과 대원올로스의 양마제도는 전국적인 총괄조직을 가지고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를 다시 요약해 결론을 지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몽골(원)제국은 제1차 지구촌제국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바다와 육지를 하나로 통합한 중상주의 성격을 지닌 세계제국이다. 이러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적인데, 몽골군의 군사력은 전쟁에서 속도를 제공하는 말(馬)이 최초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몽골제국과 그를 이은 대원올로스는 인류역사상 마필의 관리에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왕조로 등장하고 있다. 즉 중앙에 태복사(太僕寺)를 설치하여 마정을 전담케 하고 초지가 풍요로운 지역에는 양마천호(養馬千戶)를 두고 말 사육에 전력을 기울였다.

둘째, 말 사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때는 대원올로스의 코빌라이칸 때부터이며, 국영목장은 코빌라이칸 시기에 그 대략이 정해져, 테무르-얼제이투칸 때 완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원올로스 14개 국영목장 가운데 면적이나 사육규모에서 탐라가 제일 작았다고 추정된다. 탐라가 대원올로스를 대표하는 국영목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목초지가 좋고 개량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닌 섬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실제 여타 13개 국영목장을 방문해 그곳의 상태와 면밀히 비교할 경우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셋째, 대몽골(원)제국의 한 특징은 중상주의적 경제관에 따른 호적제도이다. 세계 역사상 온 나라의 백성들을 민족, 종교, 직업을 기준으로 호적과 세금 및 부역제도를 만든 나라는 대몽골제국과 대원올로스가 유일하다. 대원올로스의 호적제도는 군호(軍戶), 민호(民戶), 장호(匠戶) 등 수십 종의 세밀한 직종으로 정교하게 나누어진 제색호계(諸色戶計)가 기반인데 말의 사육에 관련된 양마호(養馬戶)도 세밀하게 조직되었고 세습되었다. 『원사』에는 14개 국영목장의 명칭과 함께 일부 목장의 경우 그 세습담당자들의 이름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탐라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원사』에는 말의 사육에 관계된 전문직종의 인물들을 카치(Khachi, 哈赤), 카라치(Kharachi, 哈刺赤)로 기록되어 있는데, 카치는 『고려사』에 목호(牧胡)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치의 원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카치가 소, 양에 이르기까지 목축을 전업으로 다루는 자란 총칭일 가능성이 높으며, 오늘날 목동이나 목민, 목축업자를 뜻하는 말치(малч)나 말친(малчин)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국영목장에서 사육하는 말들은 모두 그 소속과 소유를 나타내는 낙인을 찍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 낙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지만 『원사』에 기록된 병고(兵古), 평고(貶古) 등 낙인의 명칭과 형태를 비교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탐라의 말들에 찍힌 낙인 역시 당시의 탐가(adugu tamaga) 연구와 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13세기 몽골의 에메엘 등 모든 기마장비 부분은 기마사법(騎馬射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 흔적은 오늘날의 몽골의 기마장비에도 많이 남아 있다. 탐라의 국영목장에서도 파르티안 샤프트를 구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거세마들이 조로모리 주법을 훈련받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마장비들이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탐라의 마구를 자

세히 연구할 경우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몽골인들은 희생에 바치는 말이나 위대한 업적을 가진 말에 세테르를 붙여 존경을 표시한다. 그리고 세테르를 붙인 말(сэтэртэй морь)이 죽으면 뼈를 불태워 오보오(овоо, obuga)의 동남쪽에 묻어 눌러주는 습속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탐라에서 사육되었던 몽골말들은 베트남전에 참가한 말이 1년 동안 정글과 중국을 횡단해 고향인 몽골로 돌아왔다는 사실이나 6.25전쟁 때 무기를 싣고 전장을 누볐다는 것에서도 입증되듯이 영민하고 충성심이 강한 말들이다.

탐라에는 말과 관련된 유적들이나 전설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탐라 몽골말의 역사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찔레꽃, 열녀 정씨, 코빌라이카간, 코톨라-카이미시-베키 공주, 양왕 아얀-테무르 등)나 역사적 장소(명월포, 새별오름, 성산, 대정, 법화사, 범섬 등)의 스토리텔링, 관련 공예품이나 기념품이 전무하다. 필자는 탐라의 조랑말이 오늘날 제주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세테르-모리로 부활하여 탐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적 상징물이 되기를 바란다.

## A Study on Riding Equipment and Breeding System of Horse in the Great Mongol Empire and Yuan Empire

Park, Won-Kil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hinggis Khan Studies)

This article describes breeding system of and riding equipment of horse in the Great Mongol Empire and the Great Yuan Ulus Empire: 1) policies and method of breeding horse, and 2) riding equipment of horse. With the description, it is analyzed that what kinds of historical feature are reflected on the policies of breeding and riding equipment of horse in Yuan Empire through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History of Yuan (元史), Meng Da Bei Lu (蒙鞑備錄), The Realm of the Black Tatar (黑鞑事略), and etc. As the result, it is verified that breeding system of Yuan Empire was very systemic and comprehensive one with national organization. And it is also confirmed that present riding equipment of horse in Mongolia is succeeding that in 13th century in large part. Moreover, it is found as highly possible that Mokho (牧胡) or Khachi (哈赤) is a general term referring whom has the job of breeding cattle. Lastly, it is also found that the family line of people who took charge of horse breeding system in Tamra was shown as ① Kegültü (怯古里秃), ② Murakha (莫刺合), ③ Silbi (失里伯), ④ Tarchi (塔刺赤), ⑤ Nigülesültei (奴列你他).

### 발표자 간략프로필



박원길(Park Won-Kil, 朴元吉)은 몽골고대사 및 북방민족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2000년 3월 몽골정부로부터 몽골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포장을 받았으며, 2010년 5월 몽골과학아카데미·국립 울란바아타르 대학교로부터 명예교수를 수여받았다. 대만 정치대학 변정연구소,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수학했으며 중앙대, 고려대, 한국몽골학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이며 (사)한국몽골학회 이사장으로 있다.

주요저서로는 『몽골고대사연구』(1994),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1996), 『몽골비사역주

(I)』(1997), 『북방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습속』(1998),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2001),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2001), 『유라시아 대륙에 피어났던 야망의 바람 -칭기스칸의 꿈과 길』(2003),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2006), 『유네스코의 공예품 인증정책과 주요각국의 인증제도 연구』(2006), 『배반의 땅, 서약의 호수 -21세기 한국에 몽골은 무엇인가』(2008), 『조선과 몽골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골인식』(2010), 『한국·몽골 교류사연구』(2013), 『한국·중국·일본과 몽골-한·중·일의 초원을 향한 꿈』(2013) 등이 있고 또 『몽골현장답사기』(1996) 등 13권의 공저, 『몽골석인상의 연구』(1994) 등 2권의 번역서와 함께 60여 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위의 저서 중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은 2002년 종교분야 우수학술도서(문화관광부), 『조선과 몽골』은 2010년 역사분야 우수학술도서(문화체육관광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그의 연구업적(저서 11권, 공저 10권, 번역서 2권, 연구논문 53편)이 국제몽골학술지인 Bulletin - The IMAS News Information on Mongol Studies -, No.2(47), 2012, Ulaanbaatar, pp.109-112에 소개되어 있다.